

조선어



교육도서출판사

1990 · 평양



차 례

글자어휘편

조선글자.....	7
모음(1).....	8
자음(1).....	9
가갸표.....	23
받침(1).....	24
자음(2).....	31
모음(2).....	36
받침(2).....	47

기초문장편

1. 나는 학생입니다.....	67
2. 날씨가 좋습니다.....	69
3. 이것은 무엇입니까?.....	70
4.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71
5. 나는 일등상을 받았습니다.....	72
6.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74
7. 동생은 유치원에 갑니다.....	75
8. 할머니께서 평양에 오시었습니다.....	76
9. 어서 들어오십시오.....	77
0. 이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79
1. 어린이들이 공원에서 놀입니다.....	80
2. 너는 몇살이냐?.....	81
3. 은심이는 아침에 학교로 갔습니다.....	83
4. 나는 재미나는 책을 읽었습니다.....	84
5. 박새는 곡식을 먹지 않습니다.....	85
6. 금이는 남자애가 아닙니다.....	86
7. 5월1일경기장이 어디에 있느냐?.....	87

18.	형님은 누나와 악기를 탐니다.....	89
19.	기차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까?	90
20.	영희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91
21.	태양은 지구보다 큼니다.....	92
22.	할머니는 사과도 사오시였습니다.....	93
23.	야옹이는 물만 먹었습니다.....	94
24.	우리는 명절을 즐겁게 보냅니다.....	95
25.	묘향산은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96
26.	경기는 여섯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98
27.	기차는 원산까지 갑니다.....	99
28.	대성산은 명절처럼 흥성거렸습니다.....	100
29.	어제는 오래도록 찬비가 내렸습니다.....	101
30.	오늘은 교예극장에 가지 마십시오.....	102
31.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103
32.	기다리던 설날이 왔습니다.....	104
33.	비가 올듯 하였습니다.....	105
34.	봉숙이는 소설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106
35.	오늘은 저와 옥류관에 갑시다.....	107
36.	나는 조선에 가고 싶습니다.....	108
37.	동무들은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고있었습니다.....	109
38.	조선은 반드시 통일될것입니다.....	110
39.	어로공들은 사나운 물결과 싸우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111
40.	나는 정남이와 학교에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113
41.	금붕어는 물이 맑아야 좋아합니다.....	114
42.	학생은 지식이 많아야 합니다.....	115
43.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하면서 배웁니다.....	117
44.	탐스러운 사과가 가지마다 열렸습니다.....	119
45.	갈매기는 바다에서 사는데 물오리는 강에서 삽니다.....	120
46.	동생은 나를 보면 언제나 반깁니다.....	122
47.	형님은 창수가 묻는것을 차근차근 대줍니다.....	123
48.	엽서편지는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124

49. 선수들이 훈련을 많이 하여야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125
50. 동무들은 기쁠수밖에 없었습니다.....126
51. 형님은 극장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127
52. 제가 돌이 될 때 찍은 사진입니다.....129
53. 옥희는 어린애들이 물장난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130
54. 고슴도치는 어떤 짐승이 달려드나 무섭지 않았습니까.....131
55. 자동차가 역에 들어서자 기차가 왔습니다.....133
56. 영호는 저녁밥도 먹는체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134
57. 나는 편지를 받아 우편통에 넣었습니다.....135
58. 동생은 동무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137
59. 별이는 꽃병에 꽃을 꽂아주었습니다.....138
60. 옥경이는 노래를 잘 부를뿐만아니라 손풍금도 잘
합니다.....139
61. 10번선수는 키는 작지만 빠릅니다.....140
62. 동무들은 다 잡히고 영철이만 남아있었습니다.....141
63. 국제교예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공중그네를
연습하고있습니다.....142
64. 그는 로동자로서 일을 잘합니다.....143
65. 우리는 금속활자에 대하여 알고싶었습니다.....145
66.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렸습니다.....146
67. 경일이는 책을 사러 책방에 갔습니다.....147
68. 너자신발은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149
69. 나는 앞으로 나가다가 또다시 넘어질번하였습니다.....150
70. 형님은 레코드판에서 새 노래를 찾아보았습니다.....151
71. 동무들은 누구나 경철이의 솜씨를 부러워하였습니다.....152
72. 민옥동무가 몇층에서 사는지 모르겠습니까?.....154
73. 아저씨는 바람이 불어도 달리기를 합니다.....156
74. 성우가 낚시터에 가보니 정호가 앉아있었습니다.....158
75.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160

76. 할머니는 어린이들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시었습니다.....	16
77. 할아버지는 나에게 편지를 보라고 하시었습니다.....	16
78. 외국손님들은 명수를 레절바른 소년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16
79. 형님은 나에게 식물원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16
80. 성철이는 남혁이가 올지 몰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16
81. 오빠는 방학이기때문에 집에 올수 있습니다.....	17
82. 나는 조선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17
83. 그는 놀이감기판차도 얼마든지 만듭니다.....	17
84. 우리는 힘든것도 참아냈습니다.....	17
85. 나는 노래라도 들으시라고 록음기를 틀었습니다.....	17
86. 할머니는 동생이 없는줄 알고 방에 들어가시었습 니다.....	17
87. 지금도 이 강을 건너갈만합니까?.....	17
88. 여우는 숨이 차서 벌집에 털썩 주저앉아버렸습니다.....	18
89. 달은 숨어버린 나를 찾는것 같았습니다.....	18
90. 송이는 야영소에 가서 읽을 책을 찾아놓았습니다.....	18
91. 철수는 체육을 꾸준히 함으로써 몸이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18

본 문 편

1. 맑은 아침의 나라.....	18
2. 평양.....	19
3. 두 장군 이야기.....	19
4. 보물통과 빈통.....	19
5. 해와 달.....	19
6. 조국을 위하여.....	19
7. 조선의 명승 금강산.....	20
8. 을지문덕장군.....	20
9. 두 친구와 꿈.....	20

10.	홍부와 놀부	205
11.	즐거운 단오명절	208
12.	금도끼와 쇠도끼	210
13.	천리마동상	212
14.	놀고먹던 꿀꿀이	214
15.	조선의 사철	216
16.	곰동산과 토끼동산	218
17.	육십많은 개	219
18.	친선의 탑	221
19.	의좋은 형제	223
20.	리순신장군과 거북선	225
21.	함정에 빠진 호랑이	227
22.	무우뽑기	229
23.	호박대가리	231
24.	소나무와 조롱박	233
25.	박연폭포	234
26.	주몽전설	236
27.	평양의 을밀대	238
28.	훈민정음과 세종대왕	240
29.	승냥이와 두루미	241
30.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	243

글 자 어 회 편

조선글자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기읍	니은	디은	리을	미음	비음	지읏
(그)	(느)	(드)	(르)	(므)	(브)	(스)
ㅇ	ㅈ	ㅊ	ㅋ	ㄱ	ㅋ	ㅇ
이응	지읏	치읏	키읍	티을	피읏	히읏
(응)	(즈)	(츠)	(크)	(트)	(프)	(호)
ㅍ	ㅌ	ㅍ	ㅍ	ㅍ	ㅍ	ㅍ
된기읍	된디은	된비음	된시읏	된지읏		
(꾸)	(뜨)	(쁘)	(쓰)	(쑤)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ㅡ	ㅣ	ㅞ	ㅟ	ㅚ	ㅜ	ㅝ	ㅞ
으	이	애	애	에	예	외	위
ㅜ	ㅛ	ㅝ	ㅞ	ㅚ			
의	와	워	왜	웨			

모음(1)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자음 (1)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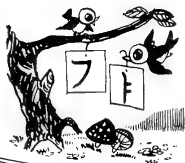


오이



여우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가	까	거	겨	교	교	구	규	그	기



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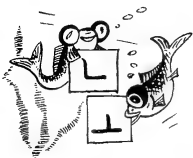


야구



고기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누나



나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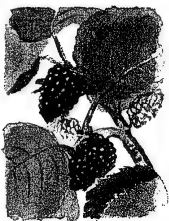
디 다 님 더 녀 도 표 두 뉘 드 디



다이야
타이 어



구두



오디

뽕나무의 열매
mulberry





리 라 띠 러 려 로 료 루 류 르 리



기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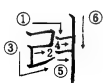
wild goo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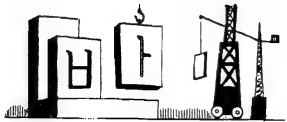


노루



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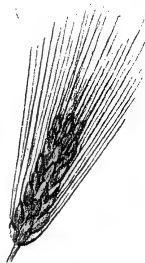




비 바바 버벼 보묘 부뷰 브비



바구니



보리



나비





ㅅ 사샤서셔소쇼수슈스시



사이다



소나무



수도





스 자쟈 저져 조쥬 주쥬즈지



자라



저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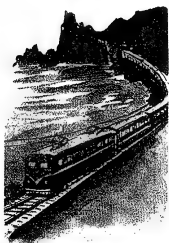


가지





치 차 차 처 처 초 초 추 추 츠 치



기차



고추



치마





키 카 카 키 커 코 쿄 쿠 큐 크 키



카바



코스모스



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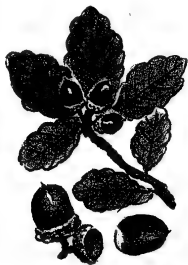




리 타 타 리 리 토 토 투 투 르 리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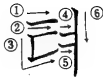


도토리



로봇

로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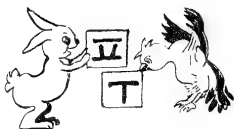


표 파 파 피 피 포 표 푸 퓨 프 피



파



포도



피아노





응 하 하 히 혀 호 효 후 휴 흐 히



하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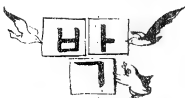
호수



가 가 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ㄱ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ㄴ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느	니
ㄷ	다	댜	더	더	도	뎐	두	듀	드	디
ㄹ	라	랴	러	려	로	료	루	류	르	리
ㅁ	마	먜	머	며	모	묘	무	뮤	므	미
ㅂ	바	뵤	버	벼	보	뵐	부	뷰	브	비
ㅅ	사	샤	서	셔	소	쇼	수	슈	스	시
ㅇ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ㅈ	자	쟸	저	져	조	쵸	주	쥬	즈	지
ㅊ	차	챤	처	쳐	초	쵸	추	츬	츠	치
ㅋ	카	카	커	켜	코	코	쿠	큐	크	키
ㄷ	타	타	터	터	토	토	투	튜	트	티
ㅍ	파	파	퍼	펴	포	포	푸	퓨	프	피
ㅎ	하	햐	허	혀	호	호	후	휴	호	히
	1	2	3	4	5	6	7	8	9	10

받침(1)



수박



북



낙지

(오징어)

낙 - 나 낙

북 - 부 북



우리 오리 박박
누나 보고 박박



자전거

산

전 — 자 저 전

산 — 사 사 산



눈눈 하얀 눈

가지마다 하얀 눈



불

별

달

달 — 다 달 불 — 부 불



별이도 솔이도

설인사 드려요



범
감 — 가 감

곰 감자
곰 — 고 곰



산들산들 불어요
봄바람이 불어요



사진첩

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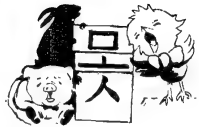
점시

첩 — ㅃ ㅃ ㅃ 톱 — ㅍ ㅍ ㅍ



손목 잡고 달리기

누가누가 이기나



붓

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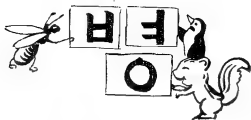
빗

빗 - ㅅ 비 빗 못 - ㅅ 모 못



울긋불긋 고운 옷

너도나도 고운 옷



병아리

성냥

공

병 — 비 벼 병 공 — 기 고 공



송이 송이 포도송이

덩쿨마다 주렁주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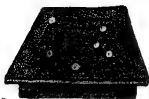
자음(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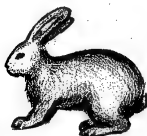
까 꺼 꼬 꾸 끼



까치



꼬니 ~~(키)~~



토끼

까 — ㄱ ㄱ 까 꼬 — ㄱ ㄱ 꼬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따 떠 또 뚜 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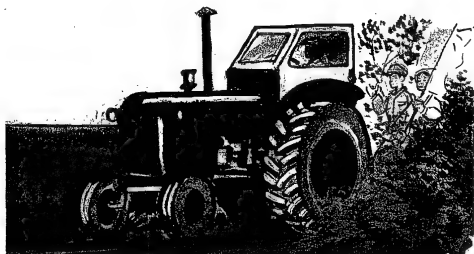


딱따구리

오또기 ^(하)

허리띠

떠 — 따 따 떠 뚜 — 따 뚜



프락또르 달린다

^(하) 풍년벌로 달린다



삐 삐 뽀 뿌 삐



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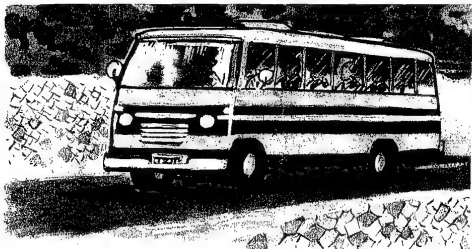


뽀뿌라



삐라

삐 — 뽀 삐 삐 뽀 — 뽀 삐 뽀



오빠 언니 모두 타고
통학버스 빵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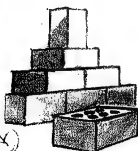
싸 씨 쏘 쭈 씨



싸리버섯



쏘파



씨리카트벽돌

싸 — 스 싸 싸 쭈 — 스 쭈 쭈



사각사각 글씨 쓰기

나도나도 하교파



짜 짜 쪼 쪼 짜



딸기ㅈ

쪼각달

샤ㅈ

짜 — ㅈ 짜 짜 ㅈ — ㅈ 짜 ㅈ



야옹이는

ㅈㅈ

누렁이는

ㅈ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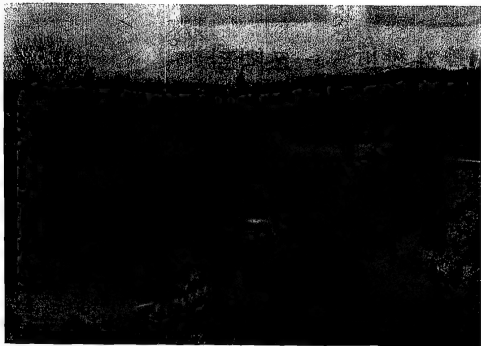
꿀꿀이는

ㅈㅈ

모음(2)



개 내 대 래 매 배 새 애 재
채 캐 태 패 해



만경대



개 애



애야애야 오너라 모두 오너라
어깨동무 모여서 달마중 가자



제 네 데 러 메 비 세 에 제 처 키 데 께 헤



제비



게



오네 오네 비가 오네
산에 들에 비가 오네



계 려 예 혀



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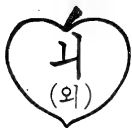


예술체조



동무동무 모여서

옛이야기 오손도손



피노되뢰뫼뵤쇠외죄최괴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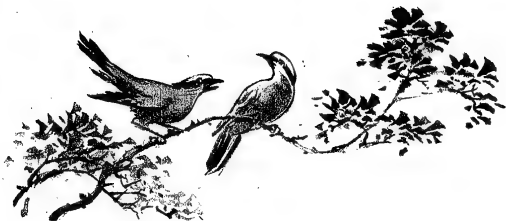
외투



자물쇠



참외



피골새 피골
노래불러 피골



귀 뒤 쉬 위 쥐 취 귀 튀 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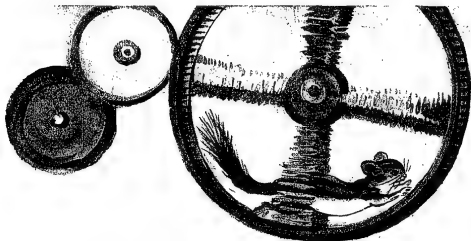
귀틀집



가위



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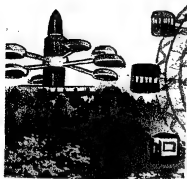


알락달락 다람쥐

바퀴 타고 뱅글뱅글



의 희



유희장



의사



의자



곱게 핀 진달래

조선의 진달래



과 뇌 봐 쇠 와 좌 화



과자



완두콩



장화



나는나는 그려요

과일동산 그려요



귀 뭉 워 휘



권투



과수원



원숭이



푸른 하늘 훨훨

두루미떼 훨훨



과 돼 왜 깨 회



돼지



화불



왜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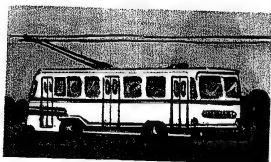
엄마토끼 팽이 들고
풍년복식 가꿔가요



계 뒤 쥐 휘



귀



무궤도전차



두손 모아 웨쳐라
산울림 울린다

받침(2)



썼다 있다 왔다



배가 열렸다 편지를 썼다
썼 — 스 쓰 써 썼 썼



썼다 썼다 무지개
아롱다롱 무지개



굳다 달다 싯다
묻다 얻다



책을 받다

받 — 바 바 받



노래를 듣다

듣 — 드 드 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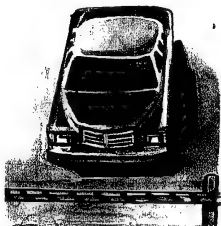


아침해가 솟아요

등근해가 돌아요



빛다 젖다 늦다
잇다 찢다



자동차가 멎다



젖을 짜다

멎 — ㅁ ㅎ ㅅ 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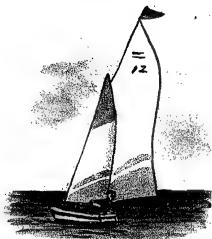


새끼염소 매매

어미 찾아 매매



덧 낮 빛 꽃다



돛배가 가다



꽃꽃 목란꽃
아름다운 목란꽃



윷놀이를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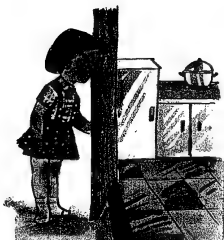
덧 — ㅍ 도 돛



동녘 남녘 북녘
저녁녘 새벽녘

부엌문을 열다

녘 — ㄱ — 녘



북녘하늘 북두칠성
남녘에도 비쳐요



걸 걸 밀

붙다 끝



냄새를
맡다



밭을 갈다

밭 — 바 바 밭



물이 얹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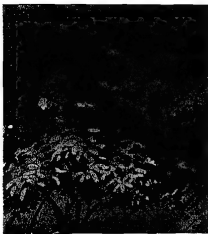


울밑에 봉선화

나비 보고 방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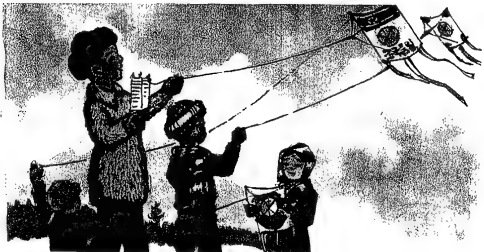
깊다 깊다 높 더다
싫다 짙 툇다



숲이 무성하다
높 — 노 높



집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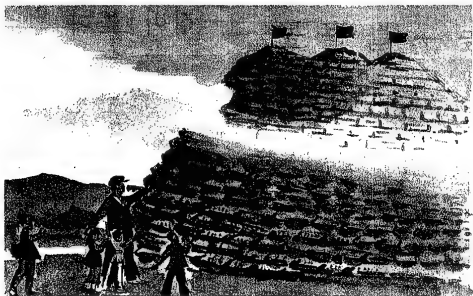
연아연아 올라라
높이높이 올라라



낱다 닳다 찢다
노랑다 피랑다 좋다



자루에 넣다 돌을 놓다 꽃이 빨갱다
넣 — 너 넣 놓 — 노 놓



남알더미 쌓아요
하늘높이 쌓아요



엮다 묶다 섞다



나무를 꺾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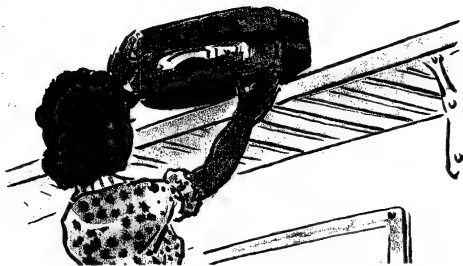
연필을 깎다 낚시질을 하다

꺾 - ㄱ ㄱ ㄱ ㄱ ㄱ ㄱ



알른알른 닭아요

반들반들 닭아요



짐을 엮다
엮 — ◦ 어 엮 엮



나무끝에 앉은 새
품고고운 앵무새



않다 언짢다 괜찮다



높이 솟은 백두산

자랑많은 백두산



양이 많다

많 — 마 마 많

끄 — 꺾 꺾 꺾 꺾



쇠줄을 끊다



끓다 낚다 늙다 묶다
맑다 엷다 읽다



닭이 울다



나무가 굵다

닭 — ㄷ 다 닭 닭
굵 — ㄱ 구 굵 굵



맑고맑은 시내물
노래하며 돌돌



쉽다 얹다 엮다



뱀을 밟다

꼬리가 짧다

밟 — ㅂ 바 밟 밟
 짧 — ㅈ 짜 째 째



넓고넓은 바다가
 나는야 좋아요



끓다 옳다 닳다

잃다 싫다 앓다



물이 끓다



공을 뚫다

끓 — ㄱ ㅋ ㆁ ㆁ ㆁ 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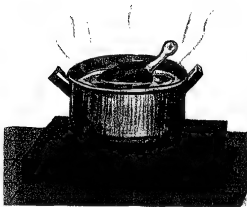
부글부글 끓어요

쇠물이 끓어요



끓다 삶다

굽다 굽다 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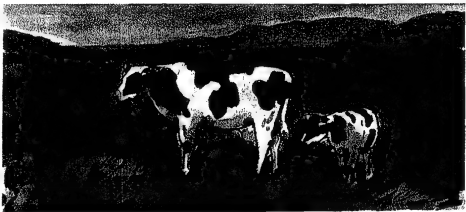


고기를 삶다



신발이 삶다

삶 — 스 사 삶 삶
 삶 — 디 더 덜 삶



얼룩얼룩 송아지

어미 삶아 얼룩얼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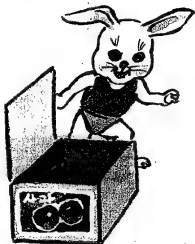


읽다 애달다

읽 — ◦ 읽 읽 읽



시 읽기 좋아라
나도야 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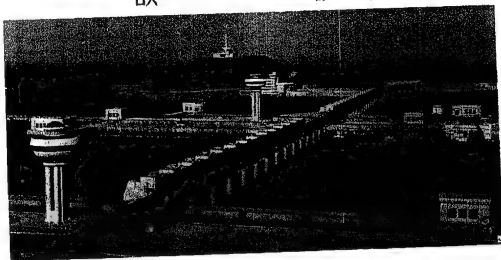


사과가 없다

없 — 〇 어 업 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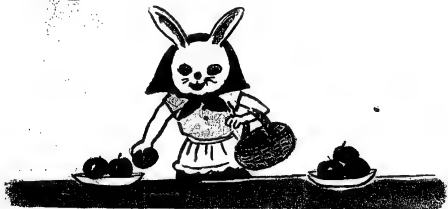
값이 높다



바다 막아 끝없이
서해갑문 뻗었네

기
(기옥시웃)

삿



두뭉으로 나누다
뭉 — 모 뭉 뭉



넋을 잃은 승냥이
무릎 꿇고 벌벌



둑 둑맞이

둑 — ㄷ 둑 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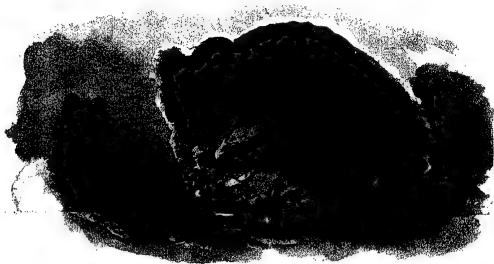
깊은 산 외곶길로
산토끼 깡충깡충



나무잎을 훑다



훑 — ㅎ 후 훑 훑



잠만 자던 얼룩곰
발바닥만 활아요

기 초 문 장 편

1. 나는 학생입니다



- 아버지는 노동자입니다.
- 어머니는 의사입니다.
- 형님은 트랙토르운전수입니다.
- 나는 학생입니다.
- 우리는 행복합니다.



◎ 나는 학생입니다.

· 나 + 는 → 나는

아버지 → 아버지는

어머니 → 어머니는

우리 → 우리는

· 학생 + 이 + 입니다 → 학생입니다

로동자 → 로동자입니다

의사 → 의사입니다

◎ 형님은 프락또르 운전수입니다.

형님 + 은 → 형님은

동생 → 동생은

학생 → 학생은

행복 → 행복은

◎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하다 + 입니다 → 행복합니다

◎ 는 = 은



2. 날씨가 좋습니다

날씨가 좋습니다.
하늘이 푸릅니다.
종달새가 노래합니다.
마음이 즐겁습니다.

◎ 날씨가 좋습니다.

- 날씨 + 가 → 날씨가
- 종달새 → 종달새가
- 우리 → 우리가
- 로동자 → 로동자가
- 좋다 + 습니다 → 좋습니다
- 즐겁다 → 즐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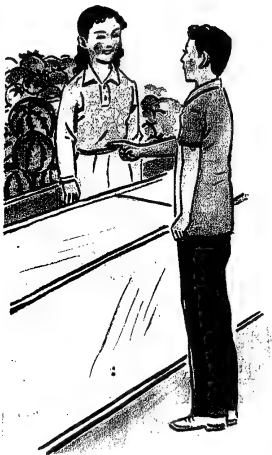
◎ 하늘이 푸릅니다.

- 하늘 + 이 → 하늘이
- 마음 → 마음이
- 형님 → 형님이

◎ 가 = 이



3.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마도입니다.
 저것은 무엇입니까?
 저것은 수박입니다.
 수박이 많습니까?
 수박이 많습니다.

◎ 이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무엇
 입니까
 로동자→로동자입
 니까
 의사→의사입니까
 종달새→종달새입
 니까

◎ 수박이 많습니까?
 많다+습니까→많습니까
 좋다→좋습니까
 즐겁다→즐겁습니까

4.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나는 교과서를 읽습니다.
솔이는 그림을 그립니다.
충성이는 글을 씁니다.

- ◎ 우리는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공부를
교과서→교과서를
도마도→도마도를
어머니→어머니를
- ◎ 솔이는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그림을
글→글을
수박→수박을
무엇→무엇을
- ◎ 를=을

5. 나는 일등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탁구경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일등을 하였습니다.

선생님이 상을 주었습니다.

나는 일등상을 받았습니다.

◎ 나는 일등상을 받았습니다.

받다+았+습니~~다~~→받았습니다 : 일등상을 받았
습니다.

좋다→좋았습니다 : 날씨가 좋았습니다.

많다→많았습니다 : 도마도가 많았습니다.

☐ 받습니다 ↔ 받았습니다

◎ 선생님이 상을 주었습니다.

주다+었+습니~~다~~→주었습니다 : 상을 주었습
니다.

읽다→읽었습니다 : 교과서를 읽었습니다.

푸르다→푸르렸습니다 : 하늘이 푸르렸습니다.

[?] 줍니다 ←→ 주었습니다

◎ 나는 일등을 하었습니다.

하다+였+습니다→하였습니다 : 일등을 하였습니다.

그리다→그리었습니다 : 그림을 그리었습니다.

[?] 합니다 ←→ 하였습니다

◎ 앳=였=였

알아봅시다.

1 하나(한), 일 2 둘(두), 이 3 셋(세, 석), 삼

4 넷(네, 녀), 사 5 다섯, 오 6 여섯, 륵

7 일곱, 칠 8 여덟, 팔 9 아홉, 구

10 열, 십 11 열하나, 십일 12 열둘, 십이

20 스물(스무), 이십 30 서른, 삼십

40 마흔, 사십 50 쉰, 오십

60 예순, 륵십 70 일흔, 칠십

80 여든, 팔십 90 아흔, 구십

100 백 200 이백

1,000 천 2,000 이천

10,000 만 20,000 이만

100,000 십만 1,000,000 백만 10,000,000 천만

100,000,000 억

156 백오십륙 3,237 삼천 이백삼십칠

289,415 이십팔만 구천 사백십오

6.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붉은 꽃이 피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노랑나비가 날아왔습니다.
노랑나비는 춤을 추었습니다.

◎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아름답다 + ㄴ → 아름다운 : 아름다운 꽃
즐겁다 → 즐거운 : 즐거운 마음
푸르다 → 푸른 : 푸른 하늘

◎ 붉은 꽃이 피었습니다.

붉다 + 은 → 붉은 : 붉은 꽃
좋다 → 좋은 : 좋은 날씨
많다 → 많은 : 많은 학생

◎ L = 은

7. 동생은 유치원에 갑니다

아침해가 솟았습니다.
동생은 유치원에 갑니다.
해가 서쪽에 기울었습니다.
동생은 저녁에 돌아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잠자리에 눕습니다.

- ◎ 동생은 유치원에 갑니다.
유치원+에 → 유치원에
서쪽 → 서쪽에
저녁 → 저녁에
잠자리 → 잠자리에



8. 할머니께서 평양에 오시였습니다

할머니께서 평양에 오시었
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마중갔
습니다.

나는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기뻐하시
었습니다.



◎ 할머니께서 평양에 오시었습니다.

· 할머니 + 께서 → 할머니께서

아버지 → 아버지께서

선생님 → 선생님께서

· 오다 + 시 + 었 + 습니다 → 오시었습니다

가다 → 가시었습니다

주다 → 주시었습니다

하다 → 하시었습니다

◎ 나는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 께 → 할머니께

아버지→아버지께

선생님→선생님께

☐ 기뻐 하였습니다 ↔ 기뻐 하신였습니다

○ 나는 기뻐 하였습니다

× 나는 기뻐 하신였습니다



9.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들어오십시오. 여기에 앉으십시오.
좋습니다. 철호동무가 있습니까?
철호동무는 영화관에 갔습니다.
철호동무가 몇시에 돌아오니까?
철호동무는 밤 열시에 돌아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다+십시오→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쓰다→쓰십시오 :글을 쓰십시오.

주다→주십시오 :꽃을 주십시오.

◎ 여기에 앉으십시오.

앉다+으십시오→앉으십시오 :여기에 앉으십시오.

읽다→읽으십시오 :교과서를 읽으십시오.

받다→받으십시오 :인사를 받으십시오.

◎ 다시 오겠습니다.

오다+겠+습니다→오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하다→하겠습니다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다→그리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 읊니다 ↔ 오겠습니다

◎ 십시오 = 으십시오

알아둡시다

한시, 두시, 세시, 네시, 다섯시, 여섯시, 일곱시, 여덟시, 아홉시, 열시, 열한시, 열두시... 스무시, 스물한시, 스물두시

일분, 이분, 삼분... 십일분... 이십분

일초, 이초, 삼초... 십일초... 이십초

한시 이십오분 사십초, 스물두시 사십팔분 이십삼초

10. 이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어머니는 교원입니다.

그분은 달님의 오빠입니다.

달님의 오빠는 축구선수입니다.

저분은 별이의 누나입니다.

별이의 누나는 배우입니다.



◎ 이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 나의 : 나의 어머니

별이 → 별이의 : 별이의 누나

어머니 → 어머니의 : 어머니의 마음

우리 → 우리의 : 우리의 학교

11. 어린이들이 공원에서 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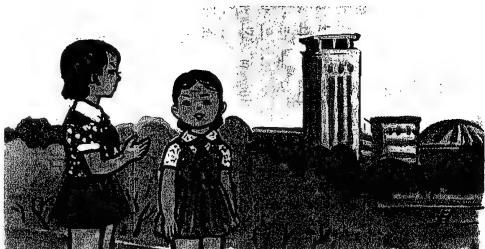
어린이들이 공원에서 놀입니다.
남자애들은 재기를 칩니다.
여자애들은 그네를 뿍니다.
어른들은 구경을 합니다.

◎ 어린이들이 공원에서 놀입니다.

- 어린이 + 들 + 이 → 어린이들이
로동자 → 로동자들이
교원 → 교원들이
영화관 → 영화관들이
- 공원 + 에서 → 공원에서 : 공원에서 놀입니다.
유치원 → 유치원에서 : 유치원에서 돌아옵니다.
평양 → 평양에서 : 평양에서 오시였습니다.
체육대회 → 체육대회에서 : 체육대회에서 일
등을 하였습니다.

[?] 어린이가 ↔ 어린이들이

12. 너는 몇살이냐?



너는 몇살이냐?

나는 열살이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나의 이름은 김봄순이다.

너는 어디에서 사니?

나는 광복거리에서 산다.

너는 어디에 가니?

나는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에 간다.

◎ 너는 몇살이냐?

몇살+이냐 → 몇살이냐 : 너는 몇살이냐?

무엇 → 무엇이냐 : 이것은 무엇이냐?

꽃 → 꽃이냐 : 저것은 꽃이냐?

형님 → 형님이냐 : 너의 형님이냐?

◎ 나는 열살이다.

열살+이+다→열살이다 : 나는 열살이다.

축구선수→축구선수이다 : 형님은 축구선수이다.

영화관→영화관이다 : 저것이 영화관이다.

교원→교원이다 : 별이의 누나는 교원이다.

◎ 너는 어디에서 사니?

살다+니→사니 : 어디에서 사니?

가다→가니 : 집에 가니?

많다→많니 : 도마도가 많니?

좋다→좋니 : 날씨가 좋니?

◎ 나는 광복거리에서 산다.

산다+다→산다 : 광복거리에서 산다.

주다→주다 : 수박을 주다.

차다→차다 : 제기를 차다.

놀다→놀다 : 공원에서 놀다.

알아봅시다

사람 한사람, 한명, 일명, 백이십일명

나이 두살, 백열두살

배 여덟척, 백팔십척

토끼 세마리, 백삼십마리

포 아홉문, 백구십문

가방 네개, 백사십개

나무 열그루, 백십그루

비행기 다섯대, 백오십대

성냥 다섯가치, 백오십가치

집 여섯채, 백륙십채

연필 다섯자루, 백오십자루

종이 일곱장, 백칠십장

옷 다섯벌, 백오십벌

신 다섯켤레, 백오십켤레

온도 오십오도 오부

값 오원, 오십전, 오원 오십전

길이 오십오미터 오센치 오미리

무게 오십오키로그램, 오그램, 오십키로 오그램

13. 은심이는 아침에 학교로 갔습니다

은심이는 아침에 학교로
갔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
였습니다.

은심이는 낮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목욕탕에서 목욕
을 하였습니다.

은심이는 비누로 세수
를 하였습니다.

그는 수건으로 몸을 씻었습니다.



◎ 은심이는 아침에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로→학교로 : 학교로 갔습니다.

비누→비누로 : 비누로 세수를 하였습니다.

어디→어디로 : 어디로 갑니까?

◎ 은심이는 낮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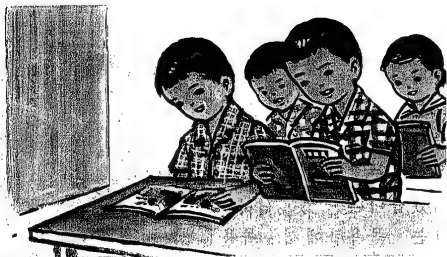
집+으로→집으로 :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건→수건으로 : 수건으로 몸을 씻었습니다.

영화관→영화관으로 : 영화관으로 갔습니다.

◎ 로=으로

14. 나는 재미나는 책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우리들은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나는 재미나는 책을 읽었습니다.
철이는 그림책을 보았습니다.

◎ 나는 재미나는 책을 읽었습니다.

재미나다 + 는 → 재미나는 : 재미나는 책

노래부르다 → 노래부르는 : 노래부르는 학생

돌아오다 → 돌아오는 : 돌아오는 형님

알아봅시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15. 박새는 곡식을 먹지 않습니다

박새는 날아다니는 새입니다.

박새는 벌레를 먹습니다.

박새는 곡식을 먹지 않습니다.

박새는 풀을 먹지 못합니다.

박새는 리로운 새입니다.

우리는 박새를 보호합니다.

- ◎ 박새는 풀을 먹지 않습
니다.

 먹다+지→먹지

 하다→하지

 피다→피지

 계시다→계시지

- ◎ ...지 않습니다.

 풀을 먹지 않습니다.

 구경을 하지 않습니다.

 꽃이 피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계시지 않습
 니다.

- ◎ ...지 못합니다.

 풀을 먹지 못합니다.

 그네를 뛰지 못합니다.

 집에 가지 못합니다.

 제기를 차지 못합니다.



16. 금이는 남자애가

아닙니다



금이는 남자애가 아닙니다.
그는 여자애입니다.
그의 나이는 두살입니다.
금이는 학교에 안갑니다.
금이는 글을 못읽습니다.

- ◎ ...가(이) 아닙니다.
남자애가 아닙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학생이 아닙니다.
교원이 아닙니다.

- ◎ 금이는 학교에 안갑니다.
안+갑니다→안잡니다
학교에 안갑니다.
춤을 안춥니다.
풀을 안먹습니다.

- ◎ 금이는 글을 못읽습니다.
못+읽습니다→못읽습니다
글을 못읽습니다.
그네를 못칩니다.
영화관에 못갑니다.
목욕을 못합니다.

- ◎ 안갑니다=가지 않습니다
못읽습니다=읽지 못합니다

17. 5월1일경기장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가 모란봉이 아니냐?

예, 여기가 모란봉입니다.

저기는 어디냐?

저기는 문수거리입니다.

5월1일경기장은 어디에
있느냐?

저것이 5월1일경기장입니다.

참 훌륭하구나.

경기장을 구경하시지 않겠습니까?

구경하겠다. 저기 배스가 오는구나. 어서 가자.



◎ 5월1일경기장이 어디에 있느냐?

있다+느냐→있느냐 : 어디에 있느냐?

가다→가느냐 : 집에 가느냐?

보다→보느냐 : 그림을 보느냐?

먹다→먹느냐 : 무엇을 먹느냐?

◎ 참 훌륭하구나.

훌륭하다+구나→훌륭하구나 : 참 훌륭하구나.

아름답다→아름답구나 : 모란봉이 아름답구나.

많다→많구나 : 어린이들이 많구나.

좋다→좋구나 : 날씨가 좋구나.

◎ 저기 배스가 오는구나.

오다+는구나→오는구나 : 배스가 오는구나.

주다→주는구나 : 수건을 주는구나.

춧다→춧는구나 : 아침해가 춧는구나.

놀다→노는구나 : 아이들이 노는구나.

◎ 어서 가자.

가다+자→가자 : 어서 가자.

살다→살자 : 집에서 살자.

드리다→드리자 : 도마도를 드리자.

하다→하자 : 공부를 하자.

18. 형님은 누나와 악기를 탑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형님은 누나와 악기를 탑니다. :
 나는 동생과 노래를 부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노래를 들습니다.

◎ 형님은 누나와 악기를 탑니다.

누나+와→누나와 : 누나와 형님

어머니→어머니와 : 어머니와 아버지

학교→학교와 : 학교와 유치원

◎ 나는 동생과 노래를 부릅니다.

동생+과→동생과 : 동생과 형님

경기장→경기장과 : 경기장과 영화관

그림책→그림책과 : 그림책과 교과서

◎ 와=과

19. 기차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까?



열차원동무, 기차가 몇시에 도착하였습니까?

다섯시 삼십분에 도착하였습니다.

기차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까?

예,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어서 오르십시오.

고맙습니다.

◎ 기차가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까?

떠나다+르→떠날 :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까?

돌아오다→돌아올 : 돌아올 학생이 있습니까?

부르다→부를 : 부를 노래가 많습니까?

◎ 앉을 자리가 있습니까?

앉다+을→앉을 : 앉을 자리가 있습니까?

먹다→먹을 : 먹을 물이 있습니까?

읽다→읽을 : 읽을 책이 많습니까?

◎ 르=을

20. 영희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영희의 아버지는 농장원입니다.
아버지는 휴양소에 가시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실 날이 멀었습니다.
영희는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영희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 영희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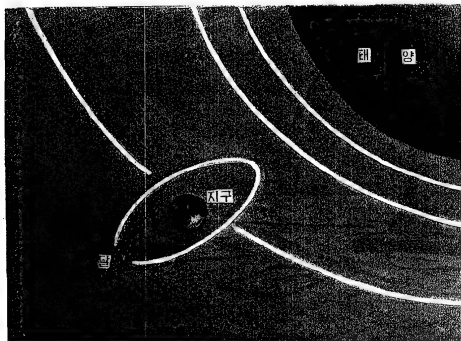
아버지 + 에게 → 아버지에게

할머니 → 할머니에게

배우 → 배우에게

학생 → 학생에게

21. 태양은 지구보다 큼니다



태양은 지구보다 큼니다.

달은 지구보다 작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둍니다.

달은 지구를 둍니다.

◎ 태양은 지구보다 큼니다.

지구+보다→지구보다 : 지구보다 큼니다.

누나→누나보다 : 누나보다 작습니다.

꽃→꽃보다 :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무엇→무엇보다 : 무엇보다 좋습니다

22. 할머니는 사과도 사오시였습니다



할머니가 파일을 사오시였습니다. ;
할아버지는 복숭아보다 사과를 좋아하십니다.
할머니는 사과도 사오시였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께 사과를 드렸습니다.

◎ 할머니는 사과도 사오시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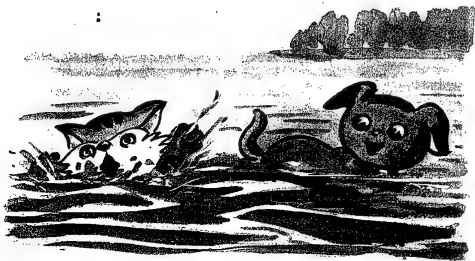
사과+도→사과도 : 사과도 사오시였습니다.

렬차원→렬차원도 : 렬차원도 있었습니까.

기차→기차도 : 기차도 떠났습니까.

선생님→선생님도 : 선생님도 가시었습니다.

23. 야옹이는 물만 먹었습니다



멍멍이와 야옹이가 수영을 합니다.
멍멍이는 수영도 잘하였습니다.
야옹이는 수영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야옹이는 물만 먹었습니다.

◎ 야옹이는 물만 먹었습니다.

물+만→물만 : 물만 먹었습니다.

그림책→그림책만 : 그림책만 보았습니다.

편지→편지만 : 편지만 썼습니다.

노래→노래만 : 노래만 불렀습니다.

24. 우리는 명절을 즐겁게 보냅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우리는 봄에 5월 1일을 맞이합니다.

5월 1일은 노동자들의 명절입니다.

우리는 명절을 즐겁게 보냅니다.

◎ 우리는 명절을 즐겁게 보냅니다.

즐겁다+게 → 즐겁게 : 명절을 즐겁게 보냅니다.

크다 → 크게 : 노래를 크게 불렀습니다.

재미나다 → 재미나게 : 달리기경기를 재미
나게 구경하였습니다.

가다 → 가게 : 휴양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알아둡시다.

일년, 이년, 삼년... 십년... 이백년

일월, 이월, 삼월, 사월, 오월, 류월, 칠월, 팔월,
구월, 시월, 십일월, 십이월

한달, 두달, 석달, 녀달, 다섯달... 일곱달... 열달,
열한달, 열두달

일일, 이일, 삼일... 륵일... 십일, 십일일... 이십
일... 백오십삼일

천구백십이년 사월 십오일, 천구백사십이년 이월
십륙일, 시월 십일, 구월 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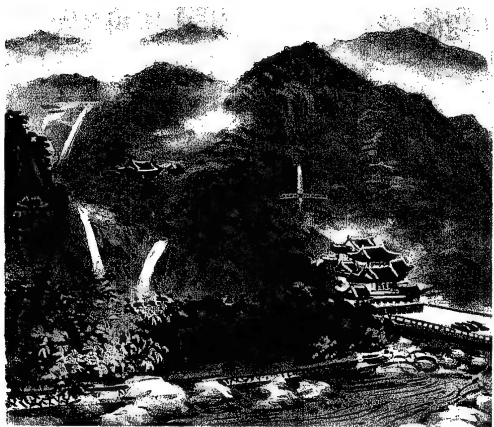
25. 묘향산은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묘향산은 조선의 명산입니다.

묘향산은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묘향산은 전설도 많습니다.

전설은 들을수록 흥미있습니다.



◎ 묘향산은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보다+근수록→볼수록 :묘향산은 볼수록 아름답습니다.

배우다→배울수록 :조선어는 배울수록 재미 있습니다.

잘하다→잘할수록 :공부는 잘할수록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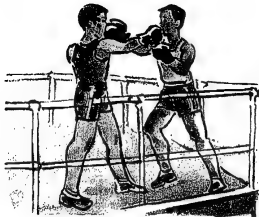
◎ 전설은 들을수록 흥미있습니다.

듣다+을수록→들을수록 :전설은 들을수록 흥미 있습니다.

많다→많을수록 :박새는 많을수록 리롭습니다.

볶다→볶을수록 :꽃은 볶을수록 곱습니다.

26. 경기는 여섯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체육관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권투경기만 합니다.
 경기는 여섯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권투경기를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 경기는 여섯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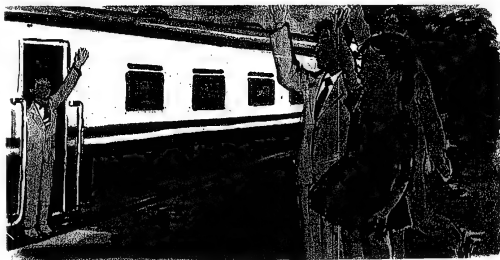
여섯시+부터 → 여섯시부터 : 여섯시부터 시작하
 였습니다.

오늘 → 오늘부터 : 오늘부터 권투경기를 합
 니다.

아침 → 아침부터 : 아침부터 날씨가 따듯하
 였습니다.

누나 → 누나부터 : 누나부터 노래를 불렀습
 니다.

27. 기차는 원산까지 갑니다



오빠는 금강산에 갑니다.
기차는 원산까지 갑니다.
차표는 저녁부터 팝니다.
오빠는 침대표를 샀습니다.
동무들이 역에서 오빠를 배웅했습니다.
오빠는 밤에 평양을 떠났습니다.

◎ 기차는 원산까지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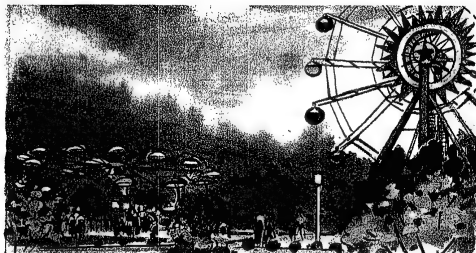
원산+까지→원산까지 : 원산까지 갑니다.

여섯시→여섯시까지 : 여섯시까지 책을 읽습니다.

오늘→오늘까지 : 오늘까지 휴양을 합니다.

목욕→목욕까지 : 나는 목욕까지 하였습니다.

28. 대성산은 명절처럼 흥성거렸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성산에 찾아왔습니다.

대성산은 명절처럼 흥성거렸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성산에서 놀았습니다.

◎ 대성산은 명절처럼 흥성거렸습니다.

명절+처럼→명절처럼 : 명절처럼 흥성거렸습니다.

나비→나비처럼 : 나비처럼 춤을 추었습니다.

형님→형님처럼 : 형님처럼 노래를 불렀습니다.

꽃→꽃처럼 : 꽃처럼 아름답습니다.

29. 어제는 오래도록 찬비가 내렸습니다.



어제는 오래도록 찬비가 내렸습니다.
날씨가 겨울처럼 추워졌습니다.
은별이는 따뜻한 세타를 입었습니다.
은별이는 춥지 않았습니다.

◎ 어제는 오래도록 찬비가 내렸습니다. ;

오래다+도록→오래도록 ; 오래도록 찬비가 내
렸습니다.

쓰다→쓰도록 ; 글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간직하다→간직하도록 ; 마음속에 간직하도
록 하였습니다.

듣다→들도록 ; 말을 들도록 하였습니다.

30. 오늘은 교예극장에 가지 마십시오



아저씨 안녕 하십니까?

그동안 잘 있었니? 할머니는 편안하시냐?

예, 편안하십니다.

아버지도 잘 있느냐?

잘 있습니다. 아저씨는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교예극장에 간다. 너도 같이 가자.

아저씨, 오늘은 교예극장에 가지 마십시오. 공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집으로 가겠다.

잘 다녀가십시오.

◎ ...지 마십시오.

교예극장에 가지 마십시오.

오늘은 찾아오지 마십시오.

차표를 사지 마십시오.

경기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31.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개미는 부지런하게 일을 하였습니다.

매미는 일을 하지 않고 노래만 불렀습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매미는 먹을것이 없었습니다.

매미는 굶어죽고말았습니다.

◎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가다+고→가고

않다→않고

있다→있고

부르다→부르고

◎ ...고말았습니다.

굶어죽고말았습니다.

찾아오고말았습니다.

옷을 입고말았습니다.

집에 가고말았습니다.

32. 기다리던 설날이 왔습니다



기다리던 설날이 왔습니다.
은희는 고운 색동옷을 입
었습니다.

은희는 꽃처럼 아름다웠습
니다.

은희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설인사를 드렸습
니다.

아버지는 은희에게 선물을 주시였습니다.

◎ 기다리던 설날이 왔습니다.

기다리다+던→기다리던 : 기다리던 설날

내리다→내리던 : 내리던 비

보다→보던 : 보던 그림

입다→입던 : 입던 옷

33. 비가 올듯하였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날씨가 흐렸습니다.

비가 올듯하였습니다.

나는 우산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낮부터 내렸습니다.

비는 저녁에 멎을듯하였습니다.

내리던 비는 밤에 멎었습니다.

◎ 비가 올듯하였습니다.

오다+르듯→올듯 : 올듯하였습니다.

가다→갈듯 : 누나가 갈듯하였습니다.

추워지다→추워질듯 : 날씨가 추워질듯하였습니다.

피다→필듯 : 꽃이 필듯하였습니다.

◎ 비는 저녁에 멎을듯하였습니다.

멎다+을듯→멎을듯 : 멎을듯하였습니다.

입다→입을듯 : 옷을 입을듯하였습니다.

먹다→먹을듯 : 점심을 먹을듯하였습니다.

않다→않을듯 : 가지 않을듯하였습니다.

34. 봉숙이는 소설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봉숙이는 공부를 끝나치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봉숙이는 소설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설은 읽을수록 마음을
끝었습니다.

봉숙이는 밤늦도록 소설을
다 읽고야말았습니다.

봉숙이의 마음은 하늘로 날아갈듯하였습니다.



◎ 봉숙이는 소설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읽다+기 → 읽기 :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 ...기 시작하였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과를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영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봉숙이는 밤늦도록 소설을 다 읽고야말았습니다.

읽다+고+야 → 읽고야 : 읽고야말았습니다.

◎ ...고야말았습니다.

소설을 다 읽고야말았습니다.

체육관에 가고야말았습니다.

글을 쓰고야말았습니다.

권투경기를 구경하고야말았습니다.

35. 오늘은 저와 옥류관에 갑시다

선녀동무, 점심을
먹었습니까?

저는 아직 안먹었
습니다.

오늘은 저와 옥류
관에 갑시다.

칭일동무는 국수
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름난 평양국수를 좋아합니다.

저도 국수를 좋아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점심에 국수를 먹읍시다.

그렇게 합시다.



◎ 오늘은 저와 옥류관에 갑시다.

가다+ㅂ시다→갑시다 : 옥류관에 갑시다.

보다→봅시다 : 영화를 봅시다.

떠나다→떠납시다 : 아침에 떠납시다.

◎ 그럼 점심에 국수를 먹읍시다.

먹다+읍시다→먹읍시다 : 국수를 먹읍시다.

받다→받읍시다 : 책을 받읍시다.

입다→입읍시다 : 옷을 입읍시다.

◎ ㅂ시다=읍시다

36. 나는 조선에 가고 싶습니다



조선은 아침해 솟는 나라입니다.
 조선은 경치도 좋고 살기도 좋습니다.
 나는 조선에 가고 싶습니다.
 어머니도 조선에 가고 싶어합니다.

◎ ...고 싶습니다.

조선에 가고 싶습니다.
 누나가 보고 싶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습
 니다.
 일을 하고 싶습니다.

◎ ...고 싶어합니다.

조선에 가고 싶어합니다.
 누나를 보고 싶어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싶어합
 니다.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37. 동무들은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고있었습니다



오늘은 함박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마당에 소복이 쌓였습니다.

동무들은 마당에서 눈사람을 만들고있었습니다.

나는 숙제를 마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도 동무들과 눈사람을 만들었습니다.

◎ ...고있었습니다.

눈사람을 만들고있었습니다.

동무들이 기다리고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고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있었습니다.

38. 조선은 반드시 통일될것입니다



조선은 예로부터 하나입니다.
조선의 강토도 하나입니다.
조선사람의 피줄도 하나입니다.
조선사람의 말도 하나입니다.
조선은 반드시 통일될것입니다.
조선은 영원히 하나로 있을것입니다.

◎ ...근(을)것입니다.

조선은 반드시 통일될것입니다.
나는 영화관으로 갈것입니다.
조선은 영원히 하나로 있을것입니다.
날씨가 좋을것입니다.

39. 어로공들은 사나운 물결과 싸우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로공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고싶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며 물결이 일었습니다.

어로공들은 사나운 물결과 싸우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어로공들은 물고기를 잡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물고기가 배에 가득찼습니다.

◎ 어로공들은 사나운 물결과 싸우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싸우다+며→싸우며 : 사나운 물결과 싸우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불다→불며 : 바람이 불며 물결이 일었습니다.

부르다→부르며 : 노래를 부르며 학교로 갔습니다.

추다→추며 : 춤을 추며 날아왔습니다.

◎ 어로공들은 물고기를 잡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잡다+으며→잡으며 : 물고기를 잡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맞다→맞으며 : 설날을 맞으며 편지를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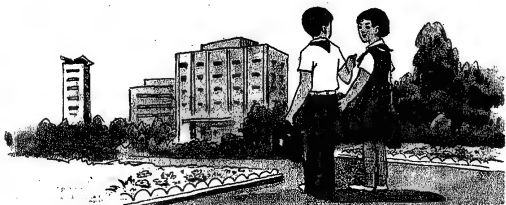
읽다→읽으며 : 소설을 읽으며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받다→받으며 : 꽃뭉음을 받으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 며=으며



40. 나는 정남이와 학교에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정남이가 우리 마을에 이사왔습니다.
정남이는 나와 나이도 같으며 키도 같습니다.
나는 정남이와 학교에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남이는 나와 더욱 친하게 되었습니다.

◎ ...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동생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남이와 친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가득차게 되었습니다.

41. 금붕어는 물이 맑아야 좋아합니다



형님은 나에게 금붕어기르는 법을 해주었습니다.

금붕어는 물이 맑아야 좋아합니다.

금붕어는 좋은 먹이를 주어야 잘 자랍니다.

금붕어는 햇빛을 쬐어야 병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금붕어기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 금붕어는 물이 맑아야 좋아합니다.

맑다+아야→맑아야 : 물이 맑아야 좋아합니다.

춥다→춥아야 : 해가 춥아야 배가 떠납니다.

많다→많아야 : 사람들이 많아야 공원이 흥성거립니다.

돌아오다→어머님이 돌아와야 집에 갑니다.

◎ 금붕어는 좋은 먹이를 주어야 잘 자랍니다.

주다+어야→주어야 : 좋은 먹이를 주어야 잘 자랍니다.

입다→입어야 : 동생은 색동옷을 입어야 껍습니다.

부르다→노래를 불러야 즐겁습니다.

춥다→날씨가 추워야 세타를 입습니다.

◎ 금붕어는 햇빛을 쬐여야 병이 나지 않습니다.

쬐이다+여야→쬐여야 : 햇빛을 쬐여야 병이 나지 않습니다.

피다→피여야 : 꽃이 피여야 나비가 날아옵니다.

하다→하여야 : 공부를 잘하여야 어머니가 좋아하십니다.

끝마치다→끝마쳐야 : 일을 끝마쳐야 점심을 먹습니다.

◎ 아야=어야=여야



42. 학생은 지식이 많아야 합니다



학생은 도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도덕을 잘 지킵니다.

학생은 지식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학생은 몸이 튼튼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체육도 잘합니다.



◎ ...아야(어야, 여야) 합니다.

학생은 지식이 많아야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고와야 합니다.
 학생은 도덕이 있어야 합니다.
 옷을 품게 입어야 합니다.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학생은 몸이 튼튼하여야 합니다.
 훌륭한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동무를 기다려야 합니다.

43.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하면서 배웁니다



사람은 아는것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 집 식구는 모두 공부합니다.

나는 고등중학교에 다닙니다.

동생은 인민학교에 다니고 누나는 대학에 다닙니다.

누나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아버지는 공장대학에 다니고 어머니는 통신대학에 다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하면서 배웁니다.

◎ 아버지와 어머니는 일하면서 배웁니다.

일하다+면서 → 일하면서 : 어머니는 일하면서 배웁니다.

다니다→다니면서 : 공장에 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쪼이다→쪼이면서 : 해별을 쪼이면서 금붕어를 기릅니다.

부르다→부르면서 : 노래를 부르면서 유치원으로 갑니다.

◎ 누나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받다+으면서→받으면서 :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먹다→먹으면서 : 사과를 먹으면서 책을 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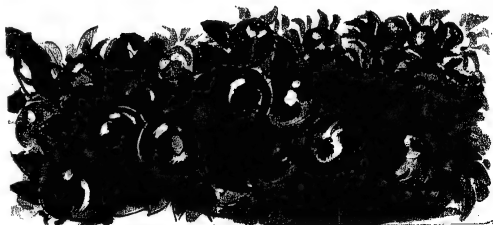
앉다→앉으면서 : 형님은 앉으면서 말을 시작하였습니다.

잡다→잡으면서 : 물고기를 잡으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 면서=으면서



44. 탐스러운 사과가 가지마다 열렸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날알풍년이 들었습니다.

과일풍년도 들었습니다.

탐스러운 사과가 가지마다 열렸습니다.

누나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과를 따니다.

조선의 사과는 맛이 좋고 향기롭습니다.

◎ 탐스러운 사과가 가지마다 열렸습니다.

가지+마다→가지마다 : 가지마다 열렸습니다.

일요일→일요일마다 : 일요일마다 영화관에
갑니다.

아침→아침마다 : 아침마다 꽃밭에 물을 줍
니다.

사람→사람마다 : 사람마다 좋아합니다.

45. 갈매기는 바다에서 사는데 물오리는 강에서 삽니다



짐승들은 짐승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갈매기는 바다에서 사는데 물오리는 강에서 삽니다.

제비는 처마밑에 둥지를 트는데 까치는 나무가지에 둥니다.

곰은 몸집이 큰데 참새는 몸집이 작습니다.
 까마귀의 색은 검은데 두루미의 색은 흰니다.

- ◎ 갈매기는 바다에서 사는데 오리는 강에서 삽니다.
 살다+는데→사는데 : 갈매기는 바다에서 사는데 물오리는 강에서 삽니다.
 가다→가는데 : 나는 가는데 동생은 옵니다.
 기다리다→기다리는데 : 기차를 기다리는데 자동차가 옵니다.

- ◎ 곰은 몸집이 큰데 참새는 몸집이 작습니다.
 크다+는데→큰데 : 곰은 몸집이 큰데 참새는 몸집이 작습니다.
 흐리다→흐린데 : 날씨는 흐린데 비는 오지 않습니다.
 춥다→추운데 : 날씨는 추운데 집은 따뜻합니다.

- ◎ 까마귀의 색은 검은데 두루미의 색은 흰니다.
 검다+은데→검은데 : 까마귀의 색은 검은데 두루미의 색은 흰니다.
 많다→많은데 : 사과는 많은데 복숭아는 많지 못합니다.
 작다→작은데 : 키는 작은데 탁구는 잘합니다.

- ◎ 는데 = 는데 = 은데

46. 동생은 나를 보면 언제나 반깁니다



나의 동생은 귀여운 아기입니다.

동생은 나이는 어린데 건강합니다.

동생은 나를 보면 언제나 반깁니다.

동생은 내가 웃으면 따라웃습니다.

나는 동생을 사랑합니다.

◎ 동생은 나를 보면 언제나 반깁니다.

보다+면→보면 : 나를 보면 언제나 반깁니다.

되다→되면 : 가을이 되면 사과를 따니다.

오다→오면 : 봄이 오면 꽃이 필니다.

크다→크면 : 키가 크면 좋습니다.

◎ 동생은 내가 웃으면 따라웃습니다.

웃다+으면→웃으면 : 내가 웃으면 따라웃습니다.

없다→없으면 : 배가 없으면 바다에 가지 못합니다.

작다→작으면 : 키가 작으면 체육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뻗다→뻗으면 : 비가 뻗으면 경기를 합니다.

47. 형님은 창수가 묻는것을 차근차근 대줍니다



창수는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창수는 배운것을 늘 복습합니다.
 창수는 모르는것이 있으면 형님에게 물습니다.
 형님은 창수가 묻는것을 차근차근 대줍니다.
 창수는 모르던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수는 배울것을 예습도 합니다.

◎ ...는것

물는것을 대줍니다.
 부르는것을 씁니다.

◎ ...ㄴ (은)것

배운것을 복습합니다.
 큰것을 주었습니다.
 붉은것이 좋습니다.
 좋은것을 주십시오.

◎ ...ㄹ(을)것

배울것을 예습합니다.
 쓸것이 없습니다.
 입을것이 많습니다.
 들을것이 있습니까?

◎ ...던것

모르던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던것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48. 엽서편지는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엽서편지는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오빠에게서 왔습니다.

봉투편지는 누구에게서 받았습니까?

언니에게서 받았습니니다.

동무들에게서 온것은 없습니까?

동무들이 보낸 년하장도 많습니다.

반갑겠습니다.

예, 정말 기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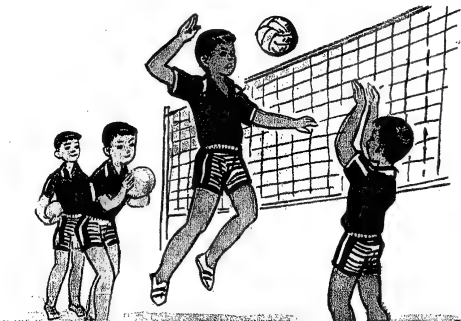
◎ 엽서편지는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누구+에게서→누구에게서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할아버지→할아버지에게서 :할아버지에게서
받았습니다.

동무→동무에게서 :동무에게서 왔습니다.

49. 선수들이 훈련을 많이 하여 야 경기에서 이길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훈련을 많이 하여야 경기에서 이길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배구훈련을 꾸준하게 하
였습니다.

우리는 사기도 높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승컵을 받을수 있습니다.

◎ ... 큰(을)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경기에서 이길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탁구를 배울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우승컵을 받을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사람이 많을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50. 동무들은 기쁠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등산을 하였습니다.
소낙비가 갑자기 내렸습니다.
우리는 산중턱에서 비를 맞을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산마루에 올랐습니다.
동무들은 손을 흔들면서 소리쳤습니다.
동무들은 기쁠수밖에 없었습니다.
등산은 참으로 즐거웠습니다.



◎ ...근(을)수밖에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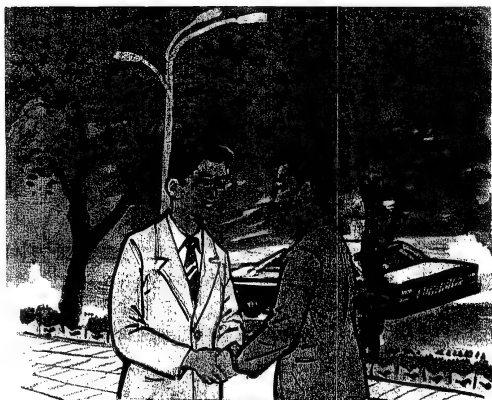
동무들은 기쁠수밖에 없었습니다.

몸이 튼튼할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를 맞을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웃을수밖에 없었습니다.

51. 형님은 극장에 가려고 집을 나셨습니다



형님은 극장에 가려고 집을 나셨습니다.
형님은 길가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으로 가고있었습니다.
형님은 무척 반가워하였습니다.
동무도 기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 형님은 극장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다+려고→가려고 :극장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타다→타려고 :기차를 타려고 하였습니다.

오르다→오르려고 :산마루에 오르려고 하였습니다.

주다→주려고 :그림책을 주려고 찾아왔습니다.

◎ 그는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으로 가고있었습니다.

먹다+으려고→먹으려고 :저녁을 먹으려고 식당으로 가고있었습니다.

입다→입으려고 :옷을 입으려고 하였습니다.

잡다→잡으려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씻다→씻으려고 :몸을 씻으려고 목욕탕으로 갔습니다.

◎ 려고=으려고



52. 제가 돌이 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첩을 볼 수 있겠습니까?

어서 보십시오.

이 사진은 누구입니까?

제가 돌이 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인민학교시절에 찍은것입니까?

아닙니다. 유치원을 마치면서 찍은것입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었습니까?

할머님이 환갑상을 받을 때 찍었습니다.

사진마다 기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 ...근(을) 때

돌이 될 때
자동차를 탈 때
마음이 즐거울 때

환갑상을 받을 때
사진을 찍을 때
언니가 없을 때

53. 옥희는 어린애들이 물장난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옥희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였습니다.

어린애들이 수도가에서 물장난을 하고있었습니다.

옥희는 그들이 물장난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옥희는 어린애들을 데리고 놀이터로 갔습니다.

옥희는 어린애들과 그네도 뛰고 미끄럼대로 탔
습니다.

어린애들은 좋아하였습니다.



◎ ...게 하였습니다.
물장난을 하지 못
하게 하였습니다.
니다.

동무와 만나게 하
였습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물을 맑게 하였
습니다.

54. 고슴도치는 어떤 짐승이 달려드나 무섭지 않았습니까



호랑이는 산속으로 먹을것을 찾아다니였습니다.

고슴도치가 숲속에서 나왔습니다.

호랑이는 고슴도치를 잡으려고 덮쳤습니다.

고슴도치는 어떤 짐승이 달려드나 무섭지 않았
습니다.

고슴도치는 등에 나온 가시로 호랑이를 찔렀습
니다.

호랑이는 놀라 달아났습니다.

고슴도치는 작으나 호랑이를 이겼습니다.

◎ 고슴도치는 어떤 짐승이 달려드나 무섭지 않았습니까.
달려들다+나→달려드나 :어떤 짐승이 달려드나
무섭지 않았습니까.

크다→크나 :꿈은 크나 참새는 작습니다.
날아다니다→날아다니나 :제비는 날아다니
나 호랑이는 날아다니지 못합니다.

◎ 고슴도치는 작으나 호랑이를 이겼습니다.

작다+으나→작으나 :고슴도치는 작으나 호랑이
를 이겼습니다.

맑다→맑으나 :여기는 맑으나 저기는 흐립
니다.

없다→없으나 :형님은 없으나 누나는 있습
니다.

◎ 나=으나



55. 자동차가 역에 들어서자 기차가 왔습니다

짐배가 부두에 닿자 자동차들이 달려왔습니다.
선장이 짐을 부리우게 하였습니다.
로동자들은 자동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자동차는 짐을 싣고 역으로 갔습니다.
자동차가 역에 들어서자 기차가 왔습니다.
기차는 짐을 싣고 건설장으로 갔습니다.

◎ 자동차가 역에 들어서자 기차가 왔습니다.

들어서다+자→들어서자 : 자동차가 역에 들어서
자 기차가 왔습니다.

부르다→부르자 : 내가 노래를 부르자 아이
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달려들다→달려들자 : 고슴도치는 호랑이가
달려들자 가시로 찢렸습니다.

56. 영호는 저녁밥도 먹는체 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영호는 학교에서 돌아오자 수학문제를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수학문제는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동생이 들어오는것도 못본체하고 수학문제만 풀었습니다.

영호는 동생이 묻는것도 못들은체하였습니다.

영호는 저녁밥도 먹는체하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영호는 제 힘으로 수학문제를 풀고야말았습니다.

영호는 힘이 들었으나 마음은 기뻐합니다.

◎ ...는(ㄴ, 은)체 하였습니다.

영호는 저녁밥을 먹는체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르는체 하였습니다.

동생이 들어오는것도 못본체 하였습니다.

나이가 어린체 하였습니다.

동생이 묻는것도 못들은체 하였습니다.

책을 읽은체 하였습니다.

57. 나는 편지를 받아 우편통에 넣었습니다

형님은 삼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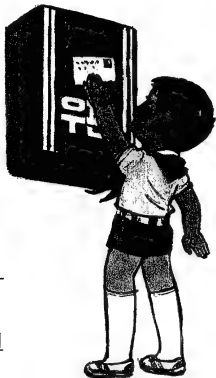
형님은 편지를 봉투에
넣어 누나에게 주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부치고싶었
습니다.

누나는 우표를 붙여 나에
게 편지를 주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받아 우편통
에 넣었습니다.

통신원은 우편통에서 편
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 동생은 편지를 받아(서) 우편통에 넣었습니다.

받다+아(서)→받아(서) :편지를 받아(서) 우편
통에 넣었습니다.

앉다→앉아(서) :자동차에 앉아(서) 거리구
경을 하였습니다.

맑다→맑아(서) :물이 맑아(서) 좋았습니다.

◎ 형님은 편지를 봉투에 넣어(서) 누나에게 주었습니다.

넣다+어(서)→넣어(서) :편지를 봉투에 넣어
(서) 누나에게 주었습니다.

찍다→찍어(서) :사진을 찍어(서) 할아버지
에게 보였습니다.

즐겁다→즐거워(서) :마음이 즐거워(서) 노
래를 불렀습니다.

◎ 누나는 우표를 붙여(서) 동생에게 주었습니다.

붙이다+어(서)→붙여(서) :우표를 붙여(서) 동
생에게 주었습니다.

희다→희어(서) :색이 희어(서) 보기 좋았
습니다.

되다→되어(서) :의사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 아=어=여

아서=어서=여서

58. 동생은 동무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도서관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집에 없었습니다.

동생은 동무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나는 모르는체하고 책을 읽었습니다.

동생은 살금살금 다가와 나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동생을 꺼안았습니다.



◎ 동생은 동무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놀다+다가→놀다가 : 동무들과 놀다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가다→갔다가 : 도서관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맑다→맑다가 : 날이 맑다가 흐렸습니다.

풀다→풀다가 : 수학문제를 풀다가 노래를 들었습니다.

59. 별이는 꽃병에 꽃을 꽂아주었습니다



달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요일에 면회를 갔습니다.

달님은 몹시 기뻐 하였습니다.

별이는 꽃병에 꽃을 꽂아주었습니다.

솔이는 동무들의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나는 재미나는 그림책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달님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집
으로 돌아왔습니다.

◎ ...아(어, 여)주었습니다.

꽃병에 꽃을 꽂아주었습니다.

사진을 찾아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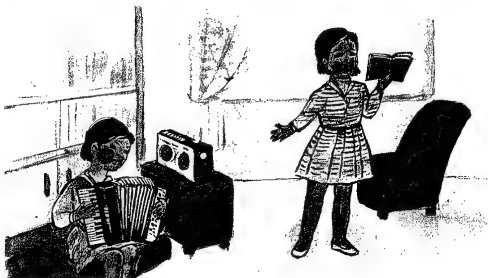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사과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림책을 보여주었습니다.

물을 먹여주었습니다.

60. 옥경이는 노래를 잘 부를뿐 만아니라 손풍금도 잘 탑니다



옥경이는 음악을 즐기고, 경애는 문학을 즐깁니다.
옥경이는 노래를 잘 부를뿐만아니라 손풍금도 잘
탑니다.

경애는 시를 잘 읊을뿐만아니라 글도 잘 짓습니다.
옥경이는 작곡가가 되려고 음악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경애는 작가가 되려고 문학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들은 서로 도와주며 사이 좋게 지냅니다.

◎ ...근(을)뿐만아니라

노래를 잘 부를뿐만아니라 기타도 잘 탑니다.
바람이 불뿐만아니라 비도 옵니다.

시를 잘 읊을뿐만아니라 글도 잘 짓습니다.
키도 같을뿐만아니라 마음도 곱습니다.

61. 10번선수는 키는 작지만 빠릅니다



축구경기가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3번선수가 10번선수에게 공을 넘겨주었습니다.

10번선수는 키는 작지만 빠릅니다.

10번선수는 공을 발자 쏜살같이 몰고나갔습니다.

10번선수는 공을 몰고가다가 골문에 차넣었습니다.

관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 10번선수는 키는 작지만 빠릅니다.

작다+지만→작지만 : 키는 작지만 빠릅니다.

알다→알지만 : 나는 알지만 동생은 모릅니다.

무섭다→무섭지만 : 호랑이는 무섭지만 고슴도치는 무섭지 않습니다.

크다→크지만 : 지구는 크지만 태양을 돕니다.

62. 동무들은 다 잡히고 영철이만 남아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숨박꼭질을 하고있습니다.
복실이는 술래가 되고 동무들은 숨었습니다.
경수는 담장뒤에 숨어있었습니다.
복실이는 경수를 잡았습니다.
동무들은 다 잡히고 영철이만 남아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영철이도 잡았습니다.
복실이의 얼굴은 기쁨에 어리여있었습니다.

◎ ...아(어, 여)있었습니다.

영철이만 남아있었습니다.
나무가 하늘높이 솟아있었습니다.
담장뒤에 숨어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있었습니다.
기쁨에 어리여있었습니다.
집이 자동차에 실려있었습니다.

63. ...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하고있습니다

교예축전에 참가
공중그네를 연습

동무는 언제부터 교예를
하였습니까?

어릴 때부터 교예를 하였습니다.

지금 무슨 연습을 하고있습니까?

국제교예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하고있습니다.

동무는 국제교예축전에 몇번 참가하였

여러번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축전에서 좋은 성
과를 거두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 위하여

국제교예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공중그네를 연
습하고있습니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하여
훈련을 많이 합니다.

동무를 만나기 위하여 거
리로 나갔습니다.

강을 건너기 위하여 배를
탔습니다.



64. 그는 로동자로서 일을 잘합니다

명남이는 학생입니다.
그는 학생으로서 공부
도 잘하지만 레절도 밝
습니다.



명남이의 형님은 공장
에 다닙니다.

그는 로동자로서 일을
잘합니다.

그는 일을 잘할뿐만아
니라 살림살이도 깐지
게 합니다.

마을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 그는 로동자로서 일을 잘합니다.

로동자+로서→로동자로서 :그는 로동자로서 일을 잘합니다.

배우→배우로서 :누나는 배우로서 춤을 잘 춥니다.

축구선수→축구선수로서 :형님은 축구선수로서 이름이 높습니다.

◎ 그는 학생으로서 공부도 잘하지만 레철도 밝습니다.

학생+으로서→학생으로서 :학생으로서 공부도 잘합니다.

교원→교원으로서 :어머니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에게 글을 배워줍니다.

농장원→농장원으로서 :아버지는 농장원으로서 휴양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 로서=으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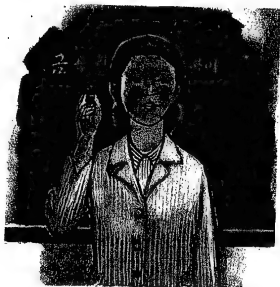


65. 우리는 금속활자에 대하여 알고싶었습니다

우리는 금속활자에
대하여 알고싶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금속활자에 대한 이야기
를 들려주시었습니다.

금속활자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조선사람들은 금속활자로 많은 책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책을 읽을 때마다 금속활자에 대하여 생
각합니다.

◎ ...에 대하여 (대해서)

금속활자에 대하여 (대해서) 알고싶었습니다.
평양에 대하여 (대해서)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갈매기의 특성에 대하여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겨울에 대하여 (대해서) 생각하였습니다.

◎ ...에 대한

금속활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었습니다.
조선에 대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봄에 대한 시를 읊었습니다.
설명절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66.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맑은 하늘이 갑자기 흐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번개가 치자 우리가 울었습니다.

나는 동생에게 번개와 우뢰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비가 멎더니 무지개가 하늘에 비꼈습니다.

동생은 무지개를 보며 좋아하였습니다.

◎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몰려오다+더니→몰려오더니 : 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멎다→멎더니 : 비가 멎더니 무지개가 비꼈습니다.

껴안다→껴안더니 : 동생을껴안더니 기쁘게 웃었습니다.

기다리다→기다리더니 : 오빠를 기다리더니 극장으로 갔습니다.

67. 경일이는 책을 사러 책방에 갔습니다



새 책이 책방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경일이는 책을 사러 책방에 갔습니다.

경일이는 책방에서 영철이를 만났습니다.

철수는 경일이를 찾으러 그의 집에 갔다가 책방에 들렀습니다.

경일이와 철수는 새로 나온 소설 책을 샀습니다.

◎ 경일이는 책을 사러 책방에 갔습니다.

사다+러→사러 : 책을 사러 책방에 갔습니다.

하다→하러 : 공부하러 학교에 갔습니다.

차다→차러 : 공을 차러 경기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뛰다→뛰러 :그네를 뛰러 놀이터에 들어섰습니다.

- ◎ 칠수는 경일이를 찾으러 그의 집에 갔다가 책방에 들렀습니다.

찾다+으러→찾으러 :경일이를 찾으러 그의 집에 갔습니다.

씻다→씻으러 :몸을 씻으러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잡다→잡으러 :새를 잡으러 산에 올랐습니다.

물다→물으러 :모르는것을 물으러 왔습니다.

- ◎ 러=으러



68. 여자신발은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신발을 사러 상점에 갔습니다.
 여러가지 신발이 많았습니다.
 여자신발은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는 누나와 나의 신발을 샀습니다.
 누나는 어머니에게서 신발을 받아 신더니 기뻐
 하였습니다.

◎ 여자신발은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보다+기에→보기에 : 여자신발은 보기에 아름다
 왔습니다.

대주다→대주기에 : 그가 대주기에 수학문제
 를 풀었습니다.

있다→있기에 : 동무가 집에 있기에 들어갔
 습니다.

사랑하다→사랑하기에 : 나무를 사랑하기에
 물을 주었습니다.

69. 나는 앞으로 나가다가 또다시 넘어질뻔하였습니다



나는 정남이에게서 스케트를 배웠습니다.

나는 처음에 일어서다가 주저앉을뻔하였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가다가 또다시 넘어질뻔하였습니다.

정남이는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주었습니다.

나는 정남이가 이끌어주기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남이의 도움을 받으면서 스케트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 … 큰 (을) 번하였습니다.

앞으로 나가다가 넘어질뻔하였습니다.

불이 꺼질뻔하였습니다.

나는 주저앉을뻔하였습니다.

공을 차넣을뻔하였습니다.

70. 형님은 레코드판에서 새 노래를 찾아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레코드판을 많이 구해왔습니다.
 형님은 레코드판에서 새 노래를 찾아보았습니다.
 나는 노래를 듣기 위하여 전축옆에 앉았습니다.
 집식구들은 조선의 명곡을 들어보았습니다.
 노래는 들을수록 흥겨웠습니다.
 어머니는 누나에게 노래를 시켜보았습니다.
 누나는 조선민요를 잘 불렀습니다.

◎ ...아(어, 여)보았습니다.

- 레코드판에서 새 노래를 찾아보았습니다.
- 나는 편지를 받아보았습니다.
- 노래를 들어 보았습니다.
- 신발을 신어 보았습니다.
- 노래를 시켜보았습니다.
- 놀이터에 다녀 보았습니다.

71. 동무들은 누구나 경철이의 솜씨를 부러워하였습니다



경철이는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나는 동무들과 경철이의 그림을 보러 갔습니다.

경철이는 사람이나 꽃을 화가처럼 잘 그렸습니다.

나는 경철이의 그림을 진짜꽃으로 착각할번하였습니다.

동무들은 누구나 경철이의 솜씨를 부러워하였습니다.

경철이는 크면 훌륭한 화가가 될것입니다.

◎ 동무들은 누구나 경찰이의 숨씨를 부러워하였습니다.
 누구+나→누구나 : 동무들은 누구나 경찰이의 숨
 씨를 부러워하였습니다.

작곡가→작곡가나 : 누나는 작곡가나 배우가
 되려고 합니다.

축구→축구나 : 나는 축구나 배구를 구경하
 겠습니다.

◎ 경찰이는 사람이나 꽃을 화가처럼 그렸습니다.

사람+이나→사람이나 : 경찰이는 사람이나 꽃을
 화가처럼 그렸습니다.

곡식→곡식이나 : 제비는 곡식이나 풀은 먹
 지 않습니다.

음악→음악이나 : 오빠는 음악이나 시를 좋
 아합니다.

◎ 나 = 이나



72. 민옥동무가 몇층에서 사는지 모르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누구를 찾으십니까?

미안하지만 말씀 좀 묻겠습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이 아파트에 있는지 오래됩니까?

예, 이 집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민옥동무가 몇층에서 사는지 모르겠습니까?

그 동무는 3층에서 삽니다.



민옥동무가 지금 집에
있습니까?

민옥동무는 집에 있
을것입니다. 제가 그
동무를 본지 몇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절히 가르쳐주어
감사합니다.

팬참습니다.

◎ 민옥동무가 몇층에서 사는지 모르겠습니까?

살다+는지→사는지 : 몇층에서 사는지 모르겠습니까?

가다→가는지 : 나는 그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짓다→짓는지 : 시를 어떻게 짓는지 알수 없습니다.

◎ 제가 그 동무를 본지 몇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다+는지→본지 : 그 동무를 본지 몇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빠르다→빠른지 : 누가 빠른지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떠나다→떠난지 : 아버지가 떠난지 10분이 되었습니다.

건강하다→건강한지 : 몸이 건강한지 모르겠습니다.

◎ 이 아파트에 있는지 오래됩니까?

있다+는지→있는지 : 이 아파트에 있는지 오래 됩니까?

춥다→춥는지 : 해가 솟는지 몇분이 됩니다.

사이좋다→사이좋은지 : 그들은 얼마나 사이 좋은지 모릅니다.

깊다→깊는지 :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대주었습니다.

73. 아저씨는 바람이 불어도 달리기를 합니다



달리기는 건강에 좋습니다.

아저씨는 아침마다 달리기를 합니다.

아저씨는 바람이 불어도 달리기를 합니다.

아저씨는 날씨가 맑아도 달리기를 하고 흐리어
도 합니다.

아저씨는 달리기를 하기에 몸이 튼튼합니다.

◎ 아저씨는 바람이 불어도 달리기를 합니다.

불다+어도→불어도 : 바람이 불어도 달리기를 합니다.

흔들다→흔들어도 : 그는 손을 흔들어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춤다→추워도 : 나는 추워도 스케트를 탑니다.

◎ 아저씨는 날씨가 맑아도 달리기를 하고 호리여도 합니다.

· 맑다+아도→맑아도 : 날씨가 맑아도 달리기를 합니다.

갈다→갈아도 : 키는 갈아도 얼굴은 다릅니다.

않다→않아도 : 우리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 호리다+여도→호리여도 : 날씨가 호리여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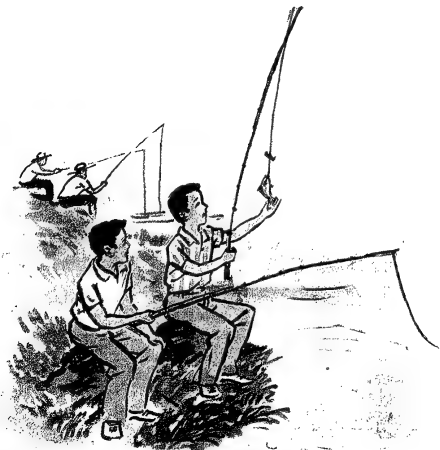
하다→하여도 : 축구는 하여도 배구는 하지 못합니다.

다니다→다녀도 : 유치원에 다녀도 수학을 잘합니다.

◎ 아도=어도=여도



74. 성우가 낚시터에 가보니 정호가 앉아있었습니다



성우는 정호네 집에 놀러 갔습니다.

정호는 집에 없었습니다.

성우가 낚시터에 가보니 정호가 앉아있었습니다.

성우가 찾으니 그는 반가와하였습니다.

정호는 벌써 고기를 열마리나 잡았습니다.

성우와 정호는 고기를 낚으면서 일요일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 ◎ 성우가 낚시터에 가보니 정호가 앉아있었습니다.

가보다+니→가보니 : 낚시터에 가보니 정호가 앉아있었습니다.

나가다→나가니 : 거리에 나가니 사람이 많았습니다.

쪼이다→쪼이니 : 해별을 쪼이니 꽃나무가 잘 자랐습니다.

치다→치니 : 우리가 소리를 치니 새가 날아갔습니다.

- ◎ 성우가 찾으니 그는 반가와하였습니다.

찾다+으니→찾으니 : 성우가 찾으니 그는 반가와하였습니다.

물다→물으니 : 내가 길을 물으니 아이들이 대주었습니다.

깊다→깊으니 : 물이 깊으니 고기가 많았습니다.

늦다→늦으니 : 시간이 늦으니 오래 있지 마십시오.

- ◎ 니=으니



75.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고모가 평양에 출장을 왔습니다.

고모는 일을 보고 집에 들렀습니다.

고모는 어제 왔다고 하더니 오늘 간다고 하였습니다.

고모는 나의 생활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나는 공부도 잘하고 어머니의 일손도 잘 돕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고모는 나에게 학생으로서 생활을 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 ◎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하다+겠+다고→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가르치다→가르치겠다고 :글을 가르치겠다고 하였습니다.
- 달려오다→달려왔다고 :어머니가 보고싶어 달려왔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 ◎ 고모는 나에게 학생으로서 생활을 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다+ㄴ다고→한다고 :생활을 잘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잡히다→잡힌다고 :고기가 잘 잡힌다고 하였습니다.
 즐기다→즐기진다고 :음악을 즐기진다고 대답 하였습니다.
- ◎ 나는 공부도 잘하고 어머니의 일손도 잘 돕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돕다+는다고→돕는다고 :어머니의 일손도 잘 돕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읊다→읊는다고 :시를 잘 읊는다고 하였습니다.
 낚다→낚는다고 :고기를 낚는다고 말하였습니다.
- ◎ 다고=ㄴ 다고=는다고

76. 할머니는 어린이들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 시였습니다

할머니는 길가에서 귀여운 어린이들을 만났습니
다.

할머니는 어린이들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시
였습니다.

어린이들은 유치원에 간다고 대답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저 집이 유치원이
냐고 물으시였습니다.

어린이들은 그렇다고 하였
습니다.

할머니는 어린이들에게 유
치원에 가니 좋으
냐고 물으시였습
니다.

어린이들은 좋
다고 말하였습
니다. 할머니는
어린이들을 대견
하게 바라보시였
습니다.



◎ 할머니는 어린이들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시였습니다.

가다+느냐고→가느냐고 : 어린이들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시였습니다.

듣다→듣느냐고 : 음악을 듣느냐고 물었습
니다.

보내다→보냈느냐고 : 동생을 보냈느냐고 물
었습니다.

◎ 할머니는 저 집이 유치원이나고 물으시였습니다.

유치원+이+냐고→유치원이나고 : 저 집이 유치
원이나고 물으시였습니다.

사진첩→사진첩이나고 : 이것이 사진첩이나
고 물었습니다.

축구선수→축구선수냐고 : 동무가 축구선수
냐고 물었습니다.

◎ 할머니는 어린이들에게 유치원에 가니 좋으냐고 물으
시였습니다.

좋다+으냐고→좋으냐고 : 유치원에 가니 좋으냐
고 물으시였습니다.

괜찮다→괜찮으냐고 : 몸이 괜찮으냐고 물었
습니다.

보고싶다→보고싶으냐고 : 언니가 보고싶으
냐고 물었습니다.

◎ 느냐고=냐고=으냐고

77. 할아버지는 나에게 편지를 보라고 하시 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에게 편지를 보라고 하시였습니다.
나는 편지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에게서 온 편지냐고 물으시였습니다.

나는 작은할아버지에게서 온 편지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라고 하시였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 할아버지는 나에게 편지를 보라고 하시였습니다.

보다+라고→보라고 :편지를 보라고 하시였습니다.

아니다→아니라고 :자기는 통신원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만나다→만나라고 :삼촌을 만나라고 말하였습니다.

배우→배우라고 :고모는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라고 하시였습니다.

읽다+으라고→읽으라고 :편지를 읽으라고 하시였습니다.

숨다→숨으라고 :나무뒤에 숨으라고 하였습니다.

입다→입으라고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물다→물으라고 :모르는것을 물으라고 하였습니다.

◎ 라고=으라고



78. 외국 손님들은 명수를 레절바른 소년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명수는 길가에서 외국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명수는 손을 들어 손님들에게 인사를 보냈습니다.

손님들도 반갑게 인사를 하였습니다.

손님들은 명수에게 국제영화회관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명수는 국제영화회관을 친절히 가리켜드렸습니다. 외국 손님들은 명수를 레절바른 소년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 외국 손님들은 명수를 레절바른 소년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소년+이라고→소년이라고 : 명수를 레절바른 소년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극장→극장이라고 : 저것이 극장이라고 대주었습니다.

무엇→무엇이라고 : 나는 무엇이라고 말할수 없었습니다.

79. 형님은 나에게 식물원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형님은 나에게 식물원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나는 형님을 따라 식
물원에 갔습니다.

우리는 식물원을 돌아
보았습니다.

나는 한그루의 꽃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
니다.



형님이 목란꽃이라고 가르쳐주었습니다.

목란꽃은 편지 오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름다운 목란꽃과 여러가지 식물을 주의깊
게 보았습니다.

◎ 형님은 나에게 식물원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가다+자고→가자고 :식물원에 가자고 하였습
니다.

돌아보다→돌아보자고 :공원을 돌아보자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다→사랑하자고 :나무를 사랑하자고
말하였습니다.

만나다→만나자고 :다시 만나자고 소리쳤습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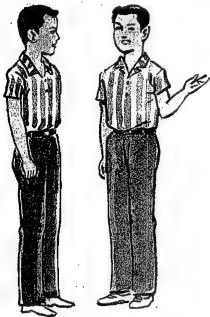
80. 성철이는 남혁이가 올지 몰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성철이가 버스정류소에서 누구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기다리느냐고 물었습니다.

성철이는 남혁이가 올지 몰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남혁이가 동물원에 갔을지 모르니 거기에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성철이는 나와 같이 가
자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동
물원에 갔습니다.

◎ 성철이는 남혁이가 올지
몰라 기다린다고 하였습니다.

오다 + 근지 → 올지

: 남혁이가 올지
몰라 기다린

다고 하였습니다. :

넘어지다→넘어질지 :꽃나무가 넘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비끼다→비낄지 :무지개가 비낄지 모르겠습니다.

◎ 나는 남혁이가 동물원에 갔을지 모르니 거기에 가보라고 하였습니다.

가다+을지→갔을지 :동물원에 갔을지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낚다→낚을지 :고기를 낚을지 모릅니다.

신다→신을지 :새 신발을 신을지 모르겠습니다.

◎ 근지=을지



81. 오빠는 방학이기때문에 집에 올수 있습니다



오빠가 대학에 간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오
빠가 그리웠습니다.
오빠는 방학이기때
문에 집에 올수 있습
니다.

어머니는 오빠가 저녁에 올지 모른다고 하시였
습니다.

시계가 다섯시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부두로 오빠를 마중갔습니다.

나는 배를 타고 온 오빠를 반갑게 맞이하였습니
다.

◎ ...기때문에

오빠는 방학이기때문에 집에 올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물기때문에 제가 대답하였습니다.

비가 오기때문에 경기장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조선사과는 향기롭기때문에 누구나 좋아합니다.

82. 나는 조선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나라를
여행하기로 하였습니까?

나는 조선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언제 떠나기로 하였습니까?

래일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빨리 떠날수 있습니까?

준비가 다되었기때문에 떠날수 있습니다.

언제 돌아오시겠습니까?

이달말에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히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 ...기로 하였습니다.

조선에 가기로 하였습니다.

래일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일손을 돕기로 하였습니다.

탁구를 치기로 하였습니다.



83. 그는 놀이감기관차도 얼마든지 만듭니다



영호는 지혜롭고 재간이 있습니다.

그는 나이는 어려도 무엇이든지 척척 만듭니다.

그는 놀이감기관차도 얼마든지 만듭니다.

나는 영호와 놀이감기관차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영호의 도움을 받아 놀이감기관차를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 그는 놀이감기관차도 얼마든지 만듭니다.

얼마+든지→얼마든지 :놀이 감기 판차도 얼마든지 만듭니다.

하다→하든지 :나는 축구를 하든지 배구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누구→누구든지 :그가 누구든지 잘 알수 없습니다.

덜치다→덜치든지 :곰이 덜치든지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그는 나이는 어려도 무엇이든지 척척 만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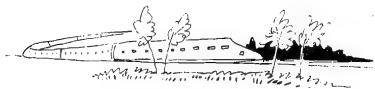
무엇+이든지→무엇이든지 :그는 무엇이든지 척척 만듭니다.

목란꽃→목란꽃이든지 :이 꽃이 목란꽃이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사람이든지 :몇 사람이든지 보내십시오.

우산→우산이든지, 신발→신발이든지 :저는 우산이든지 신발이든지 사겠습니다.

◎ 든지=이든지



84. 우리는 힘든것도

참아냈습니다



바줄당기기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편이 처음에 끌리여왔습니다.

우리는 힘을 합쳐 버티여냈습니다.

우리는 힘든것도 참아냈습니다.

상대편이 우리에게 끌리여오다가 넘어졌습니다.

경기는 우리 편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동무들은 옷에 묻은 흙을 털어내면서 웃었습니다.

◎ ...아(어, 여)냈습니다.

우리는 힘든것도 참아냈습니다.

물고기를 낚아냈습니다.

까치의 특성을 알아냈습니다.

흙을 털어냈습니다.

나무를 찍어냈습니다.

수학문제를 풀어냈습니다.

힘을 합쳐 버티여냈습니다.

상대편을 이겨냈습니다.

물오리를 덮쳐냈습니다.

85. 나는 노래라도 들으시라고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장에서 돌아오지 않았는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방바닥을 닦아내고 방석을 깔아드렸습니다.

누나는 과일이라도 드시라고 권하였습니다.

나는 노래라도 들으시라고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손님은 웃으면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직장에서 돌아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손님이 돌아갈 때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 나는 노래라도 들으시라고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노래 + 라도 → 노래라도 : 노래라도 들으시라고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오빠 → 오빠라도 : 어머니는 오빠라도 왔으면 하였습니다.

버스 → 버스라도 : 나는 버스라도 타고가자고 하였습니다.

시 → 시라도 : 시라도 읊었으면 좋겠습니다.

◎ 누나는 과일이라도 드시라고 권하였습니다.

과일 + 이 라도 → 과일이라도 : 과일이라도 드시라고 권하였습니다.

사진 → 사진이라도 : 사진이라도 찍자고 하였습니다.

동물원 → 동물원이라도 : 동물원이라도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저녁밥 → 저녁밥이라도 : 저녁밥이라도 먹으려고 하였습니다.

◎ 라도 = 이라도



86. 할머니는 동생이 없는줄 알고 방에 들어가지였습니다



할머니는 상점에 갔다가 돌아오시였습니다.

할머니는 '방에' 들어서면서 동생을 찾으시였습니다.

동생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동생이 없는줄 알고 방에 들어가지였습니다.

동생은 할머니가 온줄도 찾은줄도 모르고 글을 쓰고있었습니다.

동생은 유치원에 다니는데 글을 잘 읽고 쓸줄도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대견하여 동생에게 과자라도 먹으며 공부하라고 하시였습니다.

◎ ...는줄

동생이 없는줄 알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글을 가르쳐주는줄 알았습니다.
짐을 부리우는줄 몰랐습니다.

◎ ...ㄴ(은)줄

할머니가 온줄도 몰랐습니다.
경기가 끝난줄 모르고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찾은줄도 몰랐습니다.
우승컵을 받은줄 압니다.

◎ ...ㄹ(을)줄

글을 쓸줄도 압니다.
동무를 보낼줄 몰랐습니다.
물오리를 잡을줄 압니다.
공을 차넣을줄 모릅니다.

87. 지금도 이 강을 건너갈만합니까?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수영을 하러 갑니다.

수영을 할줄 압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수영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도 이 강을 건너갈만합니까?

건너갈수 있습니다. 여기 수영을 할수 있을만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산을 돌아가면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됩니까?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아래길로 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수영을 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

◎ … 큰(을) 만합니까? (만합니다.)

이 강을 건너갈 만합니까?

시가 나올 만합니다.

소설을 쓸 만합니다.

수영을 할 수 있을 만합니다.

그 동무의 집을 찾을 만합니까?

이야기가 들을 만합니다.

88. 여우는 숨이 차서 벌집에 털썩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여우는 배가 고파 잡아먹을 만한 짐승을 찾았습니다.

토끼가 숲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여우는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따라가다가 놓쳐버렸습니다.

여우는 숨이 차서 벌집에 털썩 주저앉아버렸습니다.

벌들이 날아들어 여우의 대가리와 몸뚱이를 쏘았습니다.

여우는 달아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 ...아(어, 여)버렸습니다.

벌집에 털썩 주저앉아버렸습니다.

까마귀를 잡아버렸습니다.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과자를 먹어버렸습니다.

따라가다가 놓쳐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합쳐버렸습니다.

89. 달은 숨어버린 나를 찾는것 같았습니다

밤하늘에 둥근 달이
떴습니다.

달은 나를 반겨 웃습
니다.

나는 나무밑에 서서
달을 쳐다보았습니다.

달은 나무가지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내가 나무우에 올라
손을 뻗치면 달이 금시
잡힐것 같습니다.

나는 담장뒤에 살짝
숨어보았습니다.

달은 숨어버린 나를 찾는것 같았습니다.

내가 가면 달도 가고 내가 서면 달도 섭니다.

나는 막 뛰여보았습니다.

달은 서있던것 같더니 나를 따라 달려왔습니다.

달은 언제 보아도 정다웠습니다.



- ◎ ...는것 같습니다.
 나를 찾는것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는것 같습니다.
- ◎ ...ㄴ (은)것 같습니다.
 나무가지에 걸린것 같습니다.
 강을 건너간것 같습니다.
 나를 찾은것 같습니다.
 강이 깊은것 같습니다.
- ◎ ...ㄹ (을)것 같습니다.
 대답할것 같습니다.
 즐거울것 같습니다.
 잡힐것 같습니다.
 맑을것 같습니다.
 좋을것 같습니다.
- ◎ ...던것 같습니다.
 가던것 같습니다.
 없던것 같습니다.



90. 송이는 야영소에 가서 읽을 책을 찾아놓았습니다



송이는 매일 야영을 떠납니다.

송이는 야영소에 가서 읽을 책을 찾아놓았습니다.

어머니는 송이가 차칸에서 먹을 음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송이가 메고 갈 배낭을 손질하여놓았습니다.

송이는 준비가 다 되지 않은것 같아서 다시 살

펴 보았습니다.

송이는 야영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목록을 하였습니다.

송이의 기분은 상쾌하였습니다.

◎ ...아(어, 여)놓았습니다.

읽을 책을 찾아놓았습니다.

신발을 닦아놓았습니다.

편지를 받아놓았습니다.

음식을 만들어놓았습니다.

준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나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배낭을 손질하여 놓았습니다.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린이를 눕혀 놓았습니다.



91. 철수는 체육을 꾸준히 함으로써 몸이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철수는 집에 여러가지 책과 운동기구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열심히 읽습니다.

철수는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지식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책을 많이 읽을뿐만아니라 체육도 꾸준히 합니다.

철수는 체육을 꾸준히 함으로써 몸이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동무들은 철수의 모범을 따르고있습니다.

㉠ 철수는 체육을 꾸준히 합으로써 몸이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하다 + ㅁ으로써 → 합으로써 : 체육을 꾸준히 함으로써 몸이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배우다 → 배움으로써 : 나는 열심히 배움으로써 많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떠나다 → 떠남으로써 : 버스가 떠남으로써 식물원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이끌어주다 → 이끌어줌으로써 : 동무들이 이끌어줌으로써 공부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 철수는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지식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읽다 + 음으로써 → 읽음으로써 :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지식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 웃다 → 웃음으로써 : 철수가 웃음으로써 동무들도 웃었습니다.

차넣다 → 차넣음으로써 : 내가 공을 차넣음으로써 우리 편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갈다 → 갈음으로써 : 이름이 갈음으로써 잘 알수 없었습니다.

㉢ ㅁ으로써 = 음으로써

본 문 편

1. 맑은 아침의 나라

세계지도를 펼치면 아세아대륙 동쪽의 중앙부에 남쪽으로 길게 놓인 반도의 나라가 인차 눈에 띄운다. 그것이 바로 조선이다.



조선은 1,144킬로미터의 길이와 645킬로미터의 너비, 22만여평방킬로미터의 면적을 가진 크지 않은 나라이다.

조선의 북쪽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쓰련, 중국과 잇닿아있고 서쪽은 중국, 동쪽과 남쪽은 일본과 가까이하고있다.

조선은 예로부터 맑은 아침의 나라 삼천리금수강산이라 불리워왔다. 삼천리란 조선을 말하는것이고 금수강산이란 비단으로 수놓은것처럼 아름답다는 뜻이다.

조선에는 이름난 산과 강, 진귀한 동물과 식물, 귀중한 지하자원이 많다.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구월산, 지리산은 산세가 우아하고 경치가 아름다와 조선의 5대명산으로 불리우고 있다.

압록강, 두만강, 대동강, 한강, 랑동강은 풍요한 대지에 생명수를 보내주는 조선의 5대장강이다.

조선의 북쪽에는 이깔나무, 붓나무, 소나무와 같은 나무들이 자라고 남쪽에는 굴, 감, 참대와 같은 남방 식물들이 자라고있다. 울창한 나무그늘밑에서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조선의 산삼이 자란다.

산에는 범, 사슴, 노루, 꿩, 클락새와 같은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 뛰놀고 바다에는 명태, 고등어, 청어 등 물고기들이 육실거린다.

땅속에는 300여종이나 되는 금은보화들이 가득차있으며 이르는곳마다에 효능높은 약수와 온천, 맑고 시원한 샘이 흘러넘친다.

조선땅은 평방으로가 아니라 립방으로 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참으로 옳은 말이다.

조선은 5천여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민족문화를 자랑하는 나라이다.

멀리 고조선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조선인민은 외래침략자들과 용감히 싸워 조국땅을 굳건히 지켜냈으며 찬란한 민족문화를 꽃피워왔다.

고구려사람들의 뛰어난 무술과 고려시기의 청자기, 세계최초의 금속활자, 민족글자인 훈민정음, 세계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 등은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잘 보여주고있다.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한강토에서 같은 언어를 쓰면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왔다. 이것은 조선민족의 긍지이며 자랑이다.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은 그 아름다움과 함께 살기 좋은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2. 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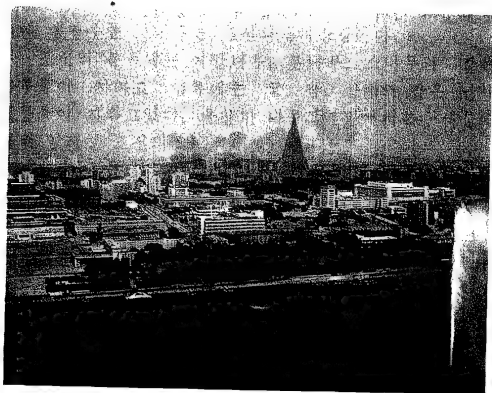
평양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이다.

평양은 지금으로부터 1500여년전에 생긴 오랜 도시이며 고구려의 수도였다.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량옆으로 펼쳐진 평양은 예로부터 풍치아름다운곳으로 널리 알려졌다.

미제침략자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평양에 40여만발의 폭탄을 떨어뜨렸다. 전쟁이 끝난 1953년 7월의 평양은 말그대로 폐허였다.

그때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오늘 평양은 옛 모습을 가셔버리고 현대적인 도시로 일떠섰다.



평양에는 유서깊은 만경대가 있고 주체사상탑과 개선문을 비롯한 기념비적건축물들이 거연히 솟아있다.

넓게 뻗은 광복거리와 창광거리를 비롯한 거리들은 고층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고 각이한 형식의 극장과 영화관, 체육관과 궁전, 박물관과 경기장 등이 서로 제 모습을 자랑하며 우뚝우뚝 서있다.

또한 가는곳마다에는 학교와 병원, 상점과 식당, 유치원과 탁아소들이 있고 현대적시설을 갖춘 유흥장과 놀이터들이 있다.

평양의 한복판으로는 맑고 푸른 대동강이 흐르고 모란봉과 대성산을 비롯한 높고낮은 산들이 평양의 풍치를 돌군다.

거리마다에 가로수가 줄지어서고 곳곳에 아담한 공원이 있는 평양은 봄이면 꽃속에 묻히고 여름이면 녹음속에 잠긴다.

하기에 어느 한 외국인은 평양은 공원속의 도시라고 말하였다.

공기도 맑고 풍치도 좋은 평양에는 수많은 외국손님들이 끊임없이 찾아와 인상깊은 방문의 나날을 보낸다.

그들은 웅장화려하고 활기에 넘친 평양의 모습에서 평양의 래일, 조선의 미래를 본다.

조선의 수도 아름다운 도시 평양은 날을 따라 그 모습을 새로이 하면서 청춘도시로 더욱 꽃피나고있다.

3. 두 장군 이야기

옛날 어느 바다가마을에 힘이 센 무쇠장군과 지혜가 많은 쇠별장군이 있었습니다.

두 장군은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쏘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나은지 알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날 두 장군은 마을사람들앞에서 누가 더 나은가를 보여주는 내기를 하였습니다. 하르르한 닭털을 담장너머로 날려보내는 내기였습니다.

무쇠장군은 자기 힘만 믿고 닭털을 힘껏 던졌습니다. 그러나 닭털은 담장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나무잎처럼 나풀거리다가는 도로 내려앉군하였습니다. 집채같은 바위도 번쩍 들어 뒹뒹 내던지군하던 무쇠장군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꿈쩍을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셋별장군이 마당에 나섰습니다. 셋별장군은 손바닥우에 닭털을 올려놓더니 입으로 혹 불었습니다. 순간 닭털은 나비가 춤추듯 하느적거리며 담장으로 거침없이 날아넘는 것이었습니다.



《야! —》

마을사람들속에서는 환성이 터져올랐습니다. 결국 지혜와 슬기가 많은 장군이 힘센 장군을 이겼습니다.



4. 보물통과 빈통

옛날옛적 어느 깊은 산골마을에 한 나무꾼총각이 살고있었습니다.

어느날 나무꾼총각은 지계를 지고 산에 나무를 하러갔습니다.

땀을 철철 흘리며 도끼질을 하던 나무꾼총각은 잠시 땀을 들이려고 나무그늘밑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벼락이라도 치듯 《짜르릉 썩썩》하는 소리가 온 산을 들었다놓는것이였습니다.

깜짝 놀란 나무꾼총각은 얼른 일어나 산꼭대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산꼭대기에서 두개의 큰 나무통이 베굴베굴 굴러내려오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한통은 조용히 굴러내려왔고 다른 통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내려왔습니다.

나무꾼총각의 눈길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 나무통에 가서 멎었습니다. 소리만 들어봐도 그안에는 틀림없이 큰 보물이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때문이였습니다.

나무꾼총각은 호기심을 가지고 그 통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통안은 텅텅 비어있었습니다.

실망한 총각이 이번에는 소리없이 굴러온 통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통안에는 진귀한 보물이 가득 들어차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나무꾼총각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럴테지, 속에 든것이 많으니까 소리가 안날수밖에!》



5. 해와 달

아직은 이 세상에 해와 달도 없었던 먼 옛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깊은 산속에 흠어머니가 오누이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어느날 어머니는 밭으로 일하러 가면서 오누이에게 말하였습니다.

《무서운 짐승들이 나돌아다니니 문을 걸어두고있거라.》

어머니의 말을 문밖에서 범이 엿들었습니다. 범은 기다리고있다가 밭에서 돌아오는 어머니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옷까지 입고 오누이를 찾아왔습니다.

오누이는 정말 어머니가 온줄 알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순간 오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누이는 뒤문으로 빠져나와 큰 느티나무우로 올라갔습니다. 오누이를 찾아 돌아치던 범은 나무우에 올라간 그들을 발견하고 집어삼킬듯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러나 범은 나무에 오를수 없었습니다.

그 꼴을 지켜보던 남동생이 그만 웃음을 터뜨리며 말하였습니다.

《이 바보야, 우리는말이야 앞집 도끼, 뒤집 도끼 얻어다 딱딱 찍으면서 올라왔단다.》

범은 도끼를 가져다 나무를 찍으며 한치한치 기어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누이는 하늘에 대고 빌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거든 성한 바줄을 내려보내고 죽이

려거든 썩은 바줄을 내려 보내주세요. >

그러자 하늘에서는 성한 바줄이 내려왔습니다. 오누이는 바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범은 오누이가 하던 말을 그만 잘못 외웠습니다.

<나를 살리려거든 썩은 바줄을 내려보내주세요. >

바줄을 타고 오르던 범은 바줄이 툭 끊어지는 바람에 수수밭에 떨어져 죽고말았습니다.

지금도 수수대가 붉은것은

그때 범이 흘린 피자국

이라고 합니다.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해와

달이 되었습니다. 해가

된 누나는 범에게 속

히운 자기를 비웃는

것 같아 사

람들이 쳐다볼 때마다 해빛으로 눈을 꼭꼭 찢어줍니다.

달이 된 남동생은 사람들 보기가 부끄러워 어두운 밤에만 나타난다고 합니다.



6. 조국을 위하여

《나는 해방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귀중하다. 찬란한 래일의 희망도 귀중하다.

그러나 나의 생명, 나의 희망, 나의 행복—그것은 조국의 운명보다 귀중치 않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둘도 없는 목숨이지만 나의 청춘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고귀한 생명,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또 어디 있으랴!》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투영웅 리수복이 남긴 글이다.

리수복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은 영웅전사이다. 그때 그의 나이는 열여덟살이었다.

머슴군의 아들로 태어난 수복은 집살림이 몹시 가난하여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을 도와 농사를 지었다.

어린 수복이는 공부를 하고싶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학교에 보내달라고 졸랐다.

그러나 가난에 쪼들린 생활은 그의 어깨에 책가방을 메워주지 못하였다.

사랑하는 아들의 자그마한 소원도 풀어주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쓰리고 아팠다.

나라없는 설움과 고통 속에서 수복이의 어린 시절은 덧없이 흘러갔다. 이 나날에 그는 참다운 조국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였던가.



나라가 해방되자 천대받던 인민이 땅과 공장의 주인이 되고 모든 자유와 행복이 그들에게 차례졌다.

수복이도 배우고싶던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고 생활은 희망에 넘쳤다.

이 모든것은 조국이 가져다준 행복이었다. 그는 조국이 귀중함을 사무치게 느꼈다.

그러기에 그는 목숨보다 귀중한 조국을 위하여 자기의 고귀한 청춘을 서슴없이 바쳤다.

영웅전사는 비록 갔어도 그가 남긴 위훈은 조국과 함께 영원히 빛나고있다.



7. 조선의 명승 금강산

《바라건대 세상에 태어나 조선의 금강산을 한번 보고 죽었으면 원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옛날 중국의 어느 시인이 남긴 말이다.

금강산은 조선의 명승이며 세계의 명승이다.

원산에서 남쪽으로 승용차를 타고 한시간 남짓이 달리면 마치 금강석과 같이 아름답고 기묘하게 생긴 산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금강산이다.

동해바다에 면한쪽을 외금강, 그 반대편 륜지쪽을 내금강, 산과 바다와 섬들로 이루어진 곳을 해금강이라고 한다.

금강산은 계절이 바뀌는데 따라 그 모습 또한 여러가지로 조화를 부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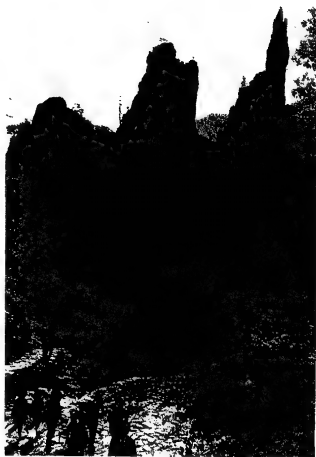
봄의 금강산은 갖가지 꽃들이 활짝 피어나 마치 아름다운 금강석과 같다 하여 금강산이라고 부른다. 여름의 금강산은 숲이 무성하여 그늘이 좋고 흰구름이 층암절벽을 감돈다 하여 봉래산이라 부른다.



가을의 금강산은 온 산이 단풍으로 붉게 물든다 하여 풍악산, 겨울의 금강산은 흰눈에 묻힌 기암절벽들이 백와 같이 드러난다 하여 개골산이라고 부른다.

금강산에서 유명한 한곳으로는 만물상, 구룡폭포, 삼선암, 삼일포를 들수 있다.

만물상은 만가지의 형상이 한눈에 안겨온다는 절벽바위이다.



아홉마리의 룡이 신비로운 조화를 부렸다는 전설이 깃든 구룡폭포는 외금강 옥류동계곡에 있다. 높이 70미터를 헤아리는 구룡폭포는 십이폭포, 비봉폭포, 조양폭포와 함께 금강산의 4대폭포의 하나로 불리운다.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은 세 신선이 그대로 바위로 굳어졌다는 삼선암은 기묘한 모습으로 삼형제처럼 서있다.

옛날에 어떤 왕이 하루만 와서 놀기로 하였는데 그 경치가 하도 아름다와 사흘을 묵어가서 삼일포라고 한다는 호수는 물이 수정처럼 맑고 고요하여 사람들이 걸음을 떼지 못하게 한다.

금강산의 1만 2천 봉우리와 수많은 바위, 폭포와 정각마다 아름다운 전설이 깃들지 않은 곳이 없다. 그가운데서도 나무꾼총각과 금강선녀의 사랑을 내용으로 한 금강산팔선녀에 대한 전설은 노래와 가극으로 옮겨져 오늘도 사람들속에 널리 전해지고있다.

이처럼 세계의 명승 금강산은 오늘 인민의 금강산으로 그 아름다움을 더욱 자랑하고있다.

:

8. 을지문덕장군

을지문덕은 고구려의 이름난 장군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난 그는 어려서부터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쓰고 칼도 잘 썼습니다.

고구려에서는 해마다 3월 3일이면 많은 사람들이 평양에 모여 사냥경기를 하였습니다.

젊은 을지문덕도 이 사냥경기에 나갔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짐승을 많이 쏘아잡아 1등을 하여 사람들을 감탄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을지문덕은 군인이 되고 장군이 되었습니다.

을지문덕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612년에 있는 수나라와의 전쟁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때 그는 전선사령관이었습니다.

300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수나라군대가 파도처럼
고구려땅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조금도 겁을
먹지 않았습니다. 을지문덕은 군대와 인민들을 이끌고
수나라군대와 용감하게 맞서싸웠습니다.

수나라군대 30여만명은 고구려땅 깊이 기여들었습
니다.

을지문덕은 살수에서 수나라군대를 격멸할 기묘한 전
술을 세우고 군사들이 진을 치게 하였습니다.

드디어 유명한 살수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을지문덕은
장검을 틀어쥐고 진두에서 전투를 지휘하였습니다. 수나
라군대가 살수를 건널 때 하늘땅을 뒤흔드는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화살이 비발치듯 날아가고 고구려군사들이
창검을 비껴들고 물밀듯이 달려나갔습니다.

30만의 수나라군대는 거의다 죽고 살수를 건너 도
망친놈들은 2,700명뿐이었습니다.

살수전투에서 넋을 잃은 수나라군대는 허둥지둥
쫓겨가고말았습니다.

이렇듯 을지문덕장군은 슬기와 용맹으로 수나라군대
를 물리쳐 승리의 북소리가 하늘높이 울려 퍼지게 하였습
니다.

나라를 지키는 싸움에서 용맹을 떨친 을지문덕은 조
선력사에 애국명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 두 친구와 꿈

두 친구가 길을 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와 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들은 산속에서 큰 꿈과 맞다들었습니다.

한사람은 어찌나 급했던지 친구생각은 잊어버리고 자기만 혼자서 높다란 나무에 기어올라가 숨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미처 그럴 사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얼른 그자리에 엎드려 숨을 죽이고있었습니다. 꿈은 죽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면 말이 생각났던것입니다.

꿈은 어슬렁어슬렁 다가왔습니다. 꿈은 엎드린 사람의 코와 귀에 주둥이를 대보기도 하고 발로 몸을 건드려 보기도 하였습니다. 꿈은 정말 죽은 사람인줄 알고 천천히 가버렸습니다.



꿈이 멀리 사라지자 나무에 올라갔던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아직도 엎드려있는 친구를 흔들며 일으키며 말하였습니다.

《아까 보니까 꿈이란놈이 자네 귀에다 주둥이를 대고 뭔가 수군거리는데 것 같더구만. 그때 뭐라고 하던가?》

《친구가 급할 때 도와줄 생각은 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숨는 사람과는 아예 사귀지 말라고 하더군.》

친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10. 흥부와 놀부

옛날 어느 마을에 놀부라는 형과 흥부라는 동생이 함께 살고있었습니다.

흥부는 마음이 착하고 부지런하였지만 놀부는 욕심이 많고 심술이 사나웠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놀부는 흥부네 가족들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따듯한 봄이 오자 남쪽으로 갔던 제비들이 날아왔습니다. 방금 쓸어질듯한 흥부네 집 처마밑에도 제비들이 찾아와 둥지를 틀었습니다.

어느날 뱀 한마리가 제비둥지에 기어올라 제비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였습니다.

흥부는 작대기를 쥐고 달려가 뱀을 잡았습다. 그 바람에 뱀은 죽고 제비새끼 한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다

리를 상하였습니다.

홍부는 제비다리에 약을 발라주고 명주실로 곱게 싸매주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제비들은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제비는 홍부에게 박씨 한알을 물어다주었습니다.

홍부네 식구들은 그 박씨를 심고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며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크고 둥근 박들이 지붕우에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홍부는 추석이 되어도 밥 한술 못먹이는 자식들에게 박속이라도 먹이려고 박을 탔습니다. 그런데 박에서는 큰기와집과 비단천, 돈과 쌀을 비롯한 온갖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홍부네는 그 많은 물건들을 마을사람들에게 나누어주어도 잘살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홍부보다 더 큰 부자가 되어 보고싶었습니다.

심보가 사나운 놀부는 우정 제비새끼를 땅에 떨어뜨려 다리를 꺾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약도 발라주고 상처도 싸매주었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제비는 박씨를 물어다주었습니다.

놀부는 좋아하며 박씨를 심었습니다.

드디어 박을 켜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박에서는 보물이 아니라 피상하게 생긴 중들이 쏟아나와 쌀을 털어가고 천을 빼앗아갔습니다. 나중에는 놀부네 기와집마저 목삭 무너뜨리고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욕심많은 놀부는 망하고말았습니다.



11. 즐거운 단오명절

조선에서는 음력 5월에 들어서면 날씨가 훈훈해지고 산과 들에는 록음이 짙어갑니다.

화창한 봄은 어느덧 지나고 첫 여름이 시작되는것입니다.

이 계절의 즐거운 명절이 바로 단오명절입니다. 단오명절이 음력 5월 5일이기때문에 5월단오라고도 합니다.

오랜 옛날부터 조선의 선조들은 모내기
와 씨뿌리기가 끝나면 다가올 풍년을 바라며
5월단오를 즐겁게 보냈습니다.



예로부터 단오날에는 새로 돌아난 쑥을 뜯어넣어 떡을 해먹었습니다. 또 솜옷이나 겹옷을 벗어버리고 가볍고 얽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놀이로 흥을 돋구었습니다.

단오명절에 제일 인기있는 놀이는 그네뛰기와 씨름이였습니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우거진 동산에 그네터가 마련됩니다. 소나무가지가 늘어지게 그네줄을 맵니다. 어여쁘게 단장한 처녀들과 아낙네들이 그네에 몸을 싣고 제비와 같이 하늘높이 날아오릅니다. 그 모습은 정말 선녀와도 같습니다.

춘향이가 그네뛰는 모습을 보고 리도령이 반했다는것도 단오날 이야기입니다.

그네터에서 여자들이 웃고 손뼉치며 기뻐할 때 씨름판에서는 남자들이 와와 떠들며 웃고 즐깁니다. 씨름은 힘과 지혜를 겨루는 놀이입니다.

힘장사들이 서로 붙잡고 힘을 겨룰 때 구경꾼들은 손에 땀을 쥐며 숨을 죽입니다. 힘이 제아무리 센 장사도 꺾이는 씨름군에게 질 때가 있습니다.

그네를 제일 잘 댄 여자에게는 대야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집안살림을 알뜰하고 깨끗이 하라는 뜻이였는가 봅니다.

씨름에서 1등을 한 힘장사에게는 황소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단오명절놀이는 노래춤과 어울리어 더욱 흥성거렸습니다.

오늘도 조선에서는 단오명절을 즐겁게 보내고있습니다.

12. 금도끼와 쇠도끼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부지런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소년은 산기슭 늪가에서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물속에 빠뜨렸습니다. 소년은 너무도 안타까와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고요하던 늪이 부글부글 끓더니 백발로인 한 분이 솟아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애야, 너 왜 울고있느냐?》

로인의 물음에 소년은 도끼를 빠뜨린 사연을 말하였습니다. 로인은 물속에 들어가더니 번쩍거리는 금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네 도끼냐?》

《아니예요. 내 도끼는 그렇게 좋은 도끼가 아니예요.》

로인은 다시 물속에 들어가 이번에는 은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아니예요. 내것은 쇠도끼예요.》

로인은 다시 물속에 들어가 쇠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그것이 제 도끼입니다.》

소년은 기뻐하며 도끼를 받았습니다.

로인은 정직한 소년을 크게 칭찬하며 금도끼와 은도끼도 다 주었습니다.

마을 지주아들놈이 이 사실을 알고 늪가에 가 나무를 하는척하다가 도끼를 우정 물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엉엉 우는 시늉을 하였습니다.

이때 물이 끓더니 백발로인이 또 나타났습니다. 지주아들놈은 도끼를 빠뜨린 사연을 말하였습니다.

로인은 물에 들어가더니 쇠도끼를 들고나왔습니다.

《아니예요. 내 도끼가 아니예요.》

로인은 다시 늪에 들어가 은도끼를 들고나왔습니다.

《아니예요. 그것도 내 도끼가 아니예요.》

그러자 로인은 금도끼를 들고나왔습니다.

《웁습니다. 그것이 내 도끼입니다.》

지주 아들놈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로인은 늪속으로 조용히 사라지고말았습니다.



13. 천리마동상

평양의 만수대언덕에 천리마동상이 높이 솟아있습니다.

앞발을 쳐들고 날개를 퍼덕이며 구름을 박차고 하늘을 날으는 그 말이 바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조선의 《천리마》입니다.

조선에는 한달음에 천리를 간다는 신비롭고 날랜 천리마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오늘 조선의 천리마는 옛 전설에 나오는 그 신비로운 말이 아닙니다. 남이 한걸음 걸으면 열걸음, 백걸음 걸으려는 조선의 장한 모습입니다.

미제침략자들을 물리치는 피어린 전쟁이 끝난 조선은 말그대로 재더미였습니다.

공장과 항구는 다 깨지고 도시와 마을은 모조리 불타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사람들은 주저앉아 한숨만 쉬고있지 않았습니다. 모두 한사람같이 팔을 걷고 일떠섰습니다.

조선의 낮과 밤은 복구와 건설로 들끓었습니다.

목탄구멍이들이 메워지고 그우에 도시들이 건설되었습니다. 숨죽었던 공장들에서는 기계소리가 울렸습니다.

넓은 벌에는 물길이 뻗어나가고 트랙또르들이 동음을 울리며 땅을 갈아엎었습니다.

조선인민은 정말 천리마처럼 내달리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처럼 부강한 인민의 나라를 세워놓았습니다.

천리마동상은 1961년 4월에 제막되었습니다. 동상의



총 높이는 46메터이고 그중 청동조각상의 높이는 14메터, 길이는 16메터입니다. 말을 석탑우에 올려놓은 동상으로 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높습니다.

천리마동상은 끊임없이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상징하며 오늘도 하늘높이 서있습니다.

14. 놀고먹던 꿀꿀이

옛날 어촌 집에 여러 집짐승들이 살고있었습니다.

어느날 집주인은 놀고먹는 짐승을 하나 잡아서 생일 놀이를 하여야겠다고 말하였습니다.

눈치빠른 야옹이가 이 말을 엿듣고 얼른 소한테 알렸습니다.

야옹이의 말을 듣고 소가 말하였습니다.

《그럼 모두 모여서 누가 놀고먹는 짐승인가를 의논해보자.》

야옹이가 돌아다니며 짐승들에게 알렸습니다.

집짐승들이 마당에 모두 모였습니다.

먼저 키가 꺽충한 말이 한발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나야 될 크게 한 일이 있다. 그제 주인을 태우고 다니고 곡식단을 질어나른것밖에.》

이번에는 소가 느릿느릿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나 역시 별로 한 일이 없소. 발을 갈고 달구지를 끌고 다녔을뿐이지.》

다음에는 야옹이가 사뿐 나서며 말하였습니다.

《저는 주인집 쌀독을 지켜 밤마다 쥐를 잡았는데 별로 자랑할만한것이 못됩니다.》

멍멍이도 자기는 주인집에 도적이 들지 못하게 지켜섰을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옆에서 다른 짐승들의 말만 듣고있던 꿀꿀이는 더럽 겁이 났습니다. 자기는 조금도 한 일이 없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꿀꿀이는 제일 만만해보이는 꼬꼬댁을 가리키며 잔치상에는 닭이 올라야 한다고 우겨댔습니다.

그러자 다른 짐승들이 꿀꿀이를 쏘아보며 꼬끼요 수탉이나 꼬꼬댁 암탉은 아침마다 시간을 알려주고 알을 낳아주기때문에 잔치상에 올라서는 안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꿀꿀이는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낮잠만 쿵쿨 잤으니 까요.

꿀꿀이는 주먹같은 눈물을 툭툭 떨구며 그자리에 플씩 주저앉고말았습니다.

이리하여 주인집 생일상에는 놀고먹던 꿀꿀이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15. 조선의 사철

조선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철이 있는 나라이다.

3월부터 5월까지의 봄이다.

봄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산과 들에는 눈이 녹으며 강에서는 얼음이 풀린다.

봄은 도시나 농촌이나 다 꽃속에 묻히는 계절이다.

봄이 오면 개나리와 진달래가 봄소식을 알리며 먼저 피어나고 련이어 살구꽃을 비롯한 과일꽃들과 여러가지 꽃들이 구름처럼 피어오른다. 만물이 소생하고 온갖 꽃 피어나는 봄은 사람들에게제도 생기를 안겨준다.

조선의 봄은 농사가 시작되는 철이다. 농민들은 밭에 씨앗을 묻고 논에 모를 낸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온다.

6월부터 8월까지의 여름이다.

여름철에는 뜨거운 해별이 내리 쪼이고 날씨는 무더워진다.

논과 밭에서는 벼와 강냉이가 싱싱 자라고 과일나무들에는 과일이 주렁진다.

조선의 여름은 산과 바다의 계절이라고 말할수 있다.

여름이 오면 사람들은 목욕이



우거지고 푸른 물결 출렁이는 산이나 바다를 찾아가 휴식의 한때를 즐긴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시작된다.

9월부터 11월까지가 가을이다.

가을이 되면 날씨는 서늘해지고 공기와 시내물도 더욱 맑아진다.

그리고 하늘은 더 높고 푸르러진다.

벌에서는 누렇게 익은 곡식들이 바람에 설레이고 파수원들에서는 과일들이 무르익어 향기를 풍긴다.

산마다에 붉게 타는 단풍은 조선의 가을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한다.

풍년의 노래넘치는 들에서는 농민들이 가을걷이로 흥성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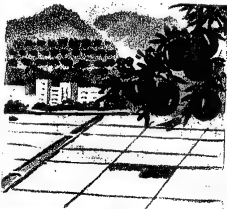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

겨울은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계속된다. 겨울이 되면 찬바람이 불고 눈이 내린다. 거리와 마을, 산과 들에는 흰눈이 덮이고 강물은 꽁꽁 언다.

조선의 겨울은 평균기온이 영하 15도로서 대체로 날씨가 푸근하다.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면 사람들은 스키장이나 스케트장을 찾아가 겨울의 흥취를 돋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조선은 이렇듯 사철이 있어 계절의 아름다움과 정서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나라이다.



16. 곰동산과 토끼동산

옛날 어느곳에 곰동산과 토끼동산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귀여운 토끼들은 동산을 아름답게 꾸리려고 모두 부지런히 일하였습니다.

집들레에는 꽃씨를 뿌리고 동산에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미숙한 곰들은 아름다운 동산을 마구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살이 피둥피둥 진 곰들은 푸르러가는 나무들을 마구 꺾어버렸습니다. 어떤 곰은 힘자랑을 한다고 우쭐렁거리며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렸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토끼네 집들은 꽃속에 묻히고 동산에는 푸른 숲이 우거졌습니다. 산열매가 향기를 풍기고 못새들이 찾아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토끼들은 그늘아래서 더위를 모르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곰동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해가 짹짹 내리쬐어도 해빛을 가리울 선선한 그늘 하나 없었습니다.

장마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무숲이 무성한 토끼동산은 무더기비에도 끄떡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무 한대 없는 곰동산에는 큰물이 나고 바위가 무너져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곰들은 모두 큰물에 빠져죽고말았습니다.
 나무를 사랑하지 않고 모조리 뽑아버렸기때문이었습니다.

17. 욕심많은 개

개 한마리가 부엌에서 고기덩어리를 훔쳐물고 달아
 나다가 개울을 건느게 되었습니다.

개울에 놓인 다리를 건느던 개는 물속에서 이상한것
 을 발견하였습니다. 맑은 물만이 잔잔히 흐르던 개울에
 고기덩어리를 문 또 한마리의 개가 있었던것입니다.

(하, 저것 봐라.)

개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놈이 물고있는 고기덩이가 내것보다 더 큰데 저것도 마저 빼앗아먹어야지.)

욕심많은 개는 물속에 있는 개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개도 자기를 노려보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욕심많은 개는 물속의 개를 향해 힘껏 짖었습니다.

《왕—왕—》

순간 입에 물었던 고기덩어리가 침범하고 물에 떨어졌습니다.



18. 친선의 탑

평양의 풍치아름다운 모란봉기슭에는 푸른 하늘을 때리고 높이 솟은 두개의 탑이 있습니다.

하나의 탑은 해방탑이고 다른 하나는 우의탑입니다.

해방탑과 우의탑에는 소련인민과 중국인민에 대한 조선인민의 뜨거운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조선은 36년동안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령도밑에 일제를 쳐부시고 나라를 해방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간고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인민은 1945년 8월 15일 소련군대와 함께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를 해방하였습니다.

소련군대는 조선해방을 위한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조선인민은 이것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하여 해방탑을 세웠습니다.

나라가 해방된 다음 조선인민은 새 생활 창조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던 1950년 6월 25일 미제는 조선에서 전쟁의 불을 질렀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은 공화국북반부를 단숨에 삼켜보려고 15개 추종국가군대까지 조선전쟁에 끌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장군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의 힘을 꺾을수 없었습니다.

3년간 계속된 조국해방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조

선인민의 빛나는 승리로 끝났습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인민은 지원군을 보내어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도와주었습니다.

조선인민은 이것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우의탑을 세웠습니다.

조선과 소련, 조선과 중국 인민들사이의 친선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피어린 투쟁속에서 맺어진 불패의 친선입니다.

조선인민은 조쏘, 조중 친선을 언제나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조선인민의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간직된 친선의 정을 더욱 두터이하기 위하여 이미 세운 해방탑과 우의탑을 더 훌륭하게 고쳐 세우도록 가르쳐주시었습니다.

조선인민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해방탑과 우의탑을 더욱 웅장하게 일떠세웠습니다.

오늘도 해방탑과 우의탑은 조쏘, 조중 친선을 귀중히 여기는 조선인민의 진정한 마음을 길이 전하며 높이 솟아있습니다.

19. 의좋은 형제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두 형제가 살고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동생은 형을 무척 따르고 존경하였습니다.

어느해 가을이였습니다.

마당질을 끝내고 벼가마니를 바라보는 형의 머리속에는 동생에 대한 생각이 불쑥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동생에게 벼 한가마니를 가져다주어야겠군. 갓 살림을 시작했으니 모든것이 다 부족할테지.)

형은 동생이 알면 받을것 같지 않아 밤중에 몰래 가져다놓기로 하였습니다.

깊은 밤에 누구도 모르게 동생네 집에 벼 한가마니



를 가져다준 형은 호뭇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형은 벼가마니를 바라보며 머리를 기웃거렸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다. 내가 어제밤에 분명 동생네 집에 벼 한가마니를 가져다주었는데 그대로 있다니...)

형은 그날밤 다시 벼가마니를 지고 동생네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형이 다리목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저쪽에서 무엇인가 등에 지고 마주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깊은 밤에 웬 사람일까?)

형은 의아한 생각을 하면서 다리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마주오던 그 사람은 다름아닌 자기 동생이었습니다. 동생도 벼 한가마니를 지고 형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니다.

〈애야!〉

〈형님!〉

그들은 한참동안이나 서로 마주보기만 하고 말을 못하였습니다. 형제는 비로소 모든것을 알게 되었던것입니다.

말 못하고 서있는 의좋은 형제를 등근 달이 더욱 밝게 비쳐주었습니다.

20. 리순신장군과 거북선

리순신은 임진조국전쟁때 거북선을 만들어 왜적을 쳐물리친 조선의 이름난 애국적장군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얼마전에 리순신은 전라도 수군의 지휘관으로 되었습니다.

그때 수군의 배들은 변변치 못했고 무기들도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리순신은 낙심하지 않고 지혜를 다하여 거북선을 만들어냈고 군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거북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철갑선입니다.

몸체는 거부기모양으로 생겼고 갑판은 거북등처럼 생겼습니다. 배머리에는 거부기대加里 같은것이 붙어있습니다. 갑판에는 칼날과 송곳을 촘촘히 꽂아 적들이 발을 붙일수 없게 하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리순신은 거북선들을 거느리고 남해바다로 나갔습니다.

왜적의 배들과 맞다든 거북선들은 불을 뿜으며 달려나갔습니다. 왜적의 배들은 가랑잎처럼 흩어지고 깨지고 불타버렸습니다.

왜적의 수군은 어찌나 혼이 났던지 거북선이 나타나기만 하면 허둥지둥 도망치곤하였습니다.

리순신장군의 함대는 이르는곳마다에서 왜적을 바다물속에 처넣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인민들은 힘을 얻고 기여든 왜적들과 용감히 싸웠습니다.

리순신은 그뒤에 조선수군사령관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8년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쫓겨가는 왜적의 마지막부대를 쳐부시는 싸움이 로량앞바다에서 벌어졌습니다.

리순신은 배우에서 전투를 지휘하였습니다. 싸움이 승리로 끝나갈무렵 적탄이 그의 가슴을 뚫었습니다.

그는 쓰러져 숨지면서도 자기가 죽었다는것을 군사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할가봐 념려하였던것입니다.

이처럼 리순신은 전쟁이 끝나기 얼마전에 애석하게 전사하였습니다.

참으로 리순신장군은 나라를 지켜 큰 공을 세워 후세에 그 이름을 남겼습니다.

21. 함정에 빠진 호랑이

호랑이가 먹을것을 찾아 헤매다가 함정에 퐁뎡 빠졌습니다.

《여보시오, 날 좀 살려주세요.》

호랑이는 맥이 빠져 비명을 질렀습니다. 때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사슴이 호랑이를 구원해주었습니다.

《자 이젠 어서 가보십시오.》

《가야지, 허지만 배고프고 맥이 빠져 못가겠다. 네 놈이라도 잡아먹고 가야지.》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당신을 구원해주었습니까?》

호랑이는 사슴의 말은 듣지도 않고 으르렁거리며 다가들었습니다.

바로 이때 토끼가 그옆을 지나가고있었습니다.

사슴은 애원에 찬 눈빛으로 토끼에게 물었습니다.

《토끼야, 내가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건져주었다단다. 그런데 나를 잡아먹겠다니 이럴수가 있니?》

토끼는 빨간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슴의 말만 듣고는 잘 모르겠구나. 네가 어떻게 호랑님을 구원해줄수 있었겠니. 호랑님이야 제 힘으로 나왔겠지.》

《아무렴, 내 힘으로 나오구말구.》

호랑이의 말은 뻔뻔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토끼야, 아니야, 아니란다...》

사슴은 너무도 안타까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난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지 모르겠구나. 호랑



님은 처음에 어떻게 하고있었나요.》

토끼는 눈한번 깜박이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토끼더러 참 담담한놈이라고 하면서 함정으로 훌쩍 뛰어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하고있었던 말이다. 그러다가 내 힘으로 함정에서 나왔지.》

토끼가 말하였습니다.

《예, 알았어요. 그럼 이젠 도로 나와보시지요.》

그러나 호랑이는 혼자 힘으로 나올수 없었습니다.

사슴과 토끼는 함정에서 악에 받쳐 돌아치는 호랑이에게 말하였습니다.

《은혜를 악으로 갚으려는놈은 언제나 그렇게 되는 법이야.》

22. 무우 뽑기

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무우를 심었습니다. 무우는 자라서 크고큰 무우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무우를 뽑으려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나 무우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더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허리를 안고 할아버지는 무우를 쥐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랬지만 무우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손녀더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의 허리를 안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허리를 안고 할아버지는 무우를 쥐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랬지만 무우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손녀는 멍멍이더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멍멍이는 손녀의 치마를 물고 손녀는 할머니의 허리를 안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허리를 안고 할아버지는 무우를 쥐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래도 무우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멍멍이는 야옹이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를 불렀습니다.

야옹이는 멍멍이의 꼬리를 쥐고 멍멍이는 손녀의 치마를 물고 손녀는 할머니의 허리를 안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허리를 안고 할아버지는 무우를 쥐고 잡아당겼습니다. 그랬지만 무우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야옹이는 쥐더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쥐는 야옹이의 꼬리를 쥐고 야옹이는 멍멍이의 꼬리를 쥐고 멍멍이는 손녀의 치마를 물고 손녀는 할머니의 허리를 안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허리를 안고 할아버지는 무우를 쥐고 잡아당겼습니다.

크고큰 무우는 쑥 뽑히었습니다.

23. 호박대 가리

조선에서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리던 때의 일입니다.

1937년 여름 간삼봉에서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에서 항일유격대원들은 일제놈들을 무리로 쓸어놓았습니다.

골짜기마다에는 일제놈들의 더러운 시체가 너저분하였습니다.

일제놈들은 이것을 실어가려고 술한 달구지를 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시체가 너무 많아 다 실을수 없었습니다.

일제놈들은 시체에서 대가리만 잘라 마대에 넣었습니다. 조선사람들이 눈치챌가봐 제놈들끼리 몰래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달구지를 끌고 온 농민들을 속일수는 없었습니다.

《이 마대속의것이 무엇인가요?》

한 농민이 넋지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몰라도 된다. 어서 나르거나 해라.》

일제놈은 짹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리님, 이 물건이 깨질것이라면 달구지를 조심히 몰아야 할게 아닙니까?》

능청스러운 농민이 또 물었습니다.

《음... 이것은 호박대 가리다.》

놈은 시치미를 뚝했습니다.

《호박에 무슨 대가리가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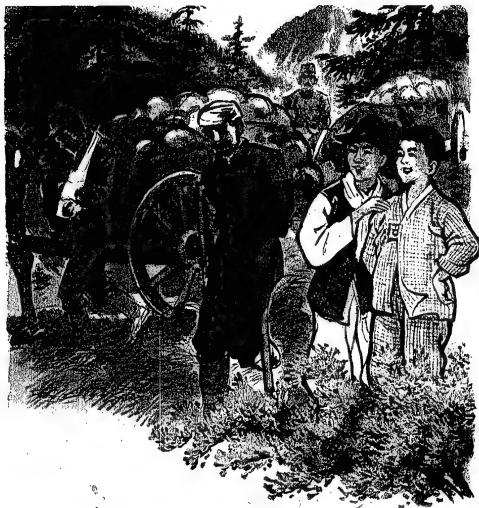
《아니다. 호박대 가리가 아니라 호박이다.》

〈예, 그참 늘 호박풍년이 들어야겠는데요. 하하하...〉

농민은 큰소리로 웃었습니다. 둘러섰던 탈구지군들도 통쾌하게 웃었습니다.

일제놈들은 울상이 되어 어쩔줄을 몰라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간삼봉의 호박대가리란 말이 세상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24. 소나무와 조롱박



산기슭의 나지막한 둔덕에 50년도 더 자란 소나무 한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소나무옆에서는 작은 조롱박이 돌아났습니다. 조롱박은 잎이 돋고 줄기가 쪽쪽 뻗으며 하루가 다르게 빨리도 자랐습니다. 어느새 조롱박줄기는 소나무를 감고 올라가 잎사귀까지 덮어버렸습니다.

어느날 조롱박은 소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50년이나 자랐다는데 키가 왜 그렇게 작습니까? 한해여름 자란 내 키보다 더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꽃들은 얼마나 곱고 아지마다 조롱조롱 달린 박들은 또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소나무는 조롱박이 하는 말을 조용히 듣고있다가 점잖게 한마디 하였습니다.

《당신은 참 자랑할것도 많습니다. ...

그렇지만 나는 뜨거운 해빛이 내리쬐이는 여름이나 눈보라치는 겨울이나 한모습으로 푸르싱싱하답니다.

당신과 같이 가을에 서리만 한번 맞아도 시들고마는 것은 조금도 부럽지 않습니다.》

25. 박연폭포

박연폭포는 고려의 옛 수도 개성에서 송악산을 넘어 북쪽으로 27키로메터가량 떨어진곳에 있다.

박연폭포는 금강산의 구룡폭포, 설악산의 대승폭포와 함께 조선의 3대명폭으로 불리운다.

박연폭포의 높이는 37메터이다. 폭포우에는 직경 8메터가량 되는 박연이라는 못이 있다. 폭포가 떨어지는 못을 고모담이라고 부른다.

박연폭포에는 이런 전설이 있다.

옛날 박진사라는 총각이 폭포의 장쾌함에 마음이 설레여 피리를 한곡조 멋들어지게 불었다. 은은한 피리소리는 못에서 살던 룡녀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그들은 부부가 되어 못속에 들어가 살았다. 사람들은 그

못을 박연이라 불렀다.

아들을 잃은 박진사의 어머니는 폭포아래의 못에 빠져 죽었다. 죽은 어머니의 구슬픈 이야기가 깃들었다는 뜻에서 그 못을 고모담이라고 부른다.

봄이면 진달래꽃, 배꽃, 살구꽃들로 폭포주변은 꽃바다를 이루고 가을이면 울긋불긋한 단풍이 온 계곡을 붉게 물들인다.

박연폭포주변에는 범사정, 관음사, 대홍사를 비롯한 려사유적들이 옛모습 그대로 보존되어있다.

예로부터 그 모습 아름다운 박연폭포는 오늘 더욱 훌륭히 꾸려져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리용되고있다.



26. 주몽전설

기원전에 세워진 고구려는 조선력사에서 가장 강하였던 나라입니다.

고구려를 세운 첫 임금인 동명왕인데 어릴적에는 주몽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몽의 아버지는 하늘임금의 아들 해모수였고 어머니는 룡왕의 딸 류화였습니다.

류화가 부여라는 나라에 붙잡혀있을 때 주몽을 낳았습니다.

주몽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말도 하였고 걸어다니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릴적부터 활도 잘 쏘고 말도 잘 탔습니다.

어느날 금와왕의 일곱 아들과 주몽은 사냥경기를 하였습니다. 주몽은 혼자서 그들보다 더 많은 짐승을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금와왕의 일곱 아들은 주몽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주몽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금와왕은 주몽에게 말시중을 들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몹시 분하게 여긴 주몽은 어머니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부여땅을 떠나 다른고장에 가서 새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타일렸습니다.

《그러자면 우선 진심으로 너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날랜 말도 구해야 한다.》

어느날 주몽은 마구간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채찍을 들고 말들을 마구 후려쳤습니다. 놀란 말들은 갈팡질팡하며 마구간안을 맴돌이쳤습니다. 그런데 한마리의 말은 길이 넘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달아났습니다. 틀림없는 준마였습니다.

주몽은 그 말을 붙잡아서 이몸에 바늘을 꽂아놓았습니다. 그날부터 말은 잘 먹지 못해 여위어갔습니다.

금와왕이 마구간을 돌아보다가 여윈 말을 보자 병든 줄 알고 주몽에게 주었습니다.

주몽은 슬그머니 바늘을 뽑고 말을 잘 먹여 준마로 만들었습니다.

주몽은 어느날 친하게 지내던 세사람을 데리고 남몰래 부여땅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금와왕의 아들들이 이것을 알고 군사들을 풀어 말을 타고 뒤쫓아왔습니다.

주몽일행은 힘을 다해 말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앞길에는 넓은 강이 나타났습니다. 다리도 배도 없었습니다.

주몽은 채찍을 높이 들고 웨쳤습니다.

《하늘임금의 손자며 통왕의 외손자인 주몽이 여기서 죽어야 하는가, 하늘땅은 나를 도우라!》

주몽은 말채찍으로 강물을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우로 수많은 물고기와 자라들이 떠올라와 다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몽일행은 그우로 말을 몰았습니다. 뒤쫓아오던 군사들이 그 다리우에 올라서자 물고기와 자라는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군사들은 몽땅 물에 빠져죽었습니다.

주몽의 일행은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산 좋고 물 맑은 곳에 이르러 나라를 세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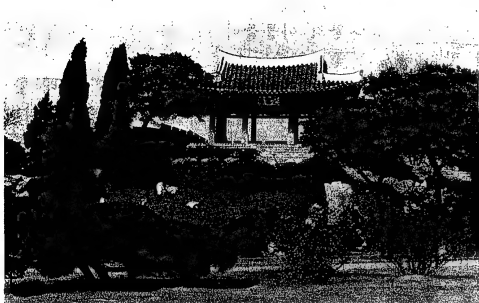
이 나라가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는 근 천년동안 동방의 강국으로 이름떨쳤습니다.

27. 평양의 을밀대

평양의 모란봉은 모란꽃처럼 아름답다 하여 불리워진 이름입니다.

모란봉에서도 가장 풍치좋은곳에 을밀대가 솟아있습니다.



을밀대는 가파로운 벼랑턱에 돌을 가쁘히 쌓아올리고 그우에 덩실하게 세워놓은 명승고적입니다.

을밀대는 고구려때 세워졌는데 수도 평양성의 북쪽을 지키는 장수들의 지휘처였습니다.

을밀대에는 여러가지 전설도 깃들어있습니다.

고구려때 을밀장군이 여기서 외적을 물리치고 평양성을 지켜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한 이곳의 경치가 하도 좋아 을밀선녀가 늘 와서 놀았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을밀대는 평양의 명승으로 이름이 높습니다.

옛 사람들은 평양에서도 경치가 뛰어나게 좋은곳을 여덟군데 꼽아 평양8경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가운데서도 유명한곳이 바로 《을밀상춘》입니다. 이 말은 을밀대에서 바라보는 봄의 경치라는 말입니다.

을밀대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참으로 황홀하고도 장쾌합니다.

눈을 들면 푸른 소나무숲속에 묻힌 최승대가 바라보입니다. 발밑으로는 깎아지른듯한 청류벽을 스치며 유유히 흐르는 맑고 푸른 대동강이 내려다보입니다. 수양버들 흐느적거리는 룡라도의 모습도 그림같이 아름답습니다.

화창한 봄이 오면 을밀대에는 못사람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습니다. 나무숲은 봄바람에 고요히 설레입니다. 떨기떨기 피어난 꽃송이들에서는 향기가 풍겨 나비와 벌들이 찾아옵니다. 온갖 새들의 고운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여줍니다.

을밀대에 오른 사람들은 록음속에 잠긴 웅장하고 화려한 거리를 굽어보며 평양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감탄합니다.

28. 훈민정음과 세종대왕

옛날에 조선사람들은 한자를 써왔습니다. 그런데 한자는 배우기도 어렵고 쓰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사람들은 《리두》라는 조선식한자를 만들어 썼습니다. 그래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리조의 4대임금인 세종대왕은 조선글자를 만들어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름난 학자들을 모아 조선글자를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학자들은 세계 여러 나라 글자들을 연구하면서 조선사람들에게 맞는 글자를 만들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리하여 자음 17자와 모음 11자, 합하여 28자의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세종대왕은 새로 만들어진 조선글자를 《훈민정음》이라고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훈민정음이란 백성을 가르치는 옳은 소리라는 뜻입니다.

1444년 1월 드디어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훈민정음은 배우기 쉽고 쓰기도 편리할뿐아니라 어떤 말이든지 다 적을수 있는 우수한 글자입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사람들이 조선글자를 널리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깨칠수 있고 쓰기에도 편리한 조선의 글자를 가지게 된 인민들의 기쁨과 긍지는 컸습니다. 인민들은 자기의 글자를 사랑하였고 그것을 열심히 배웠습

니다.

농민들과 어부들이 힘겨운 일에 시달리면서도 글을 배웠고 아이들도 어른들을 따라 글을 익혔습니다.

훈민정음은 사람들의 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훈민정음이 세상에 나오게 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자기의 고유한 문자를 가지고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더욱 빨리 발전시켜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9. 승냥이와 두루미

계절스러운 승냥이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목구멍에 굵은 뼈가 딱 걸렸던 것입니다.

승냥이는 소리도 못지르고 끙끙거리기만 하였습니다. 금방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두루미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승냥이는 손짓, 발짓을 다하여 두루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린 뼈를 빼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두루미는 긴 부리와 머리까지 승냥이의 목구멍에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고생해서야 뼈를 꺼내주었습니다.

죽을번하였던 승냥이는 겨우 살아났으나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패씼하게 여긴 두루미는 승냥이에게 뼈를 뽑아준 값을 치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뻔뻔스러운 승냥이는 오히려 짹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통담이야. 자네가성한채로 있는게 다행인가. 그 긴부리와 대갈통이 내 목구멍에 들어왔을 때 꼭 물어버리지 않은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씩 사라지라구. 내앞에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게...》

30. 한석봉과 그의 어머니

개성의 한 마을에 한석봉이란 소년이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떡장사를 하면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석봉은 어릴 때부터 글씨쓰기를 몹시 즐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대견하게 여겼습니다.

어느날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불러앉히었습니다.

《사람이란 세상을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해야 사는 보람이 있느니라. 너는 글씨쓰는 재주가 있어보이니 공부를 해야겠다.》

어머니는 그동안 장만했던 붓과 종이, 벼루와 먹을 내놓았습니다.

이리하여 한석봉은 집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어느 절간에서 글씨를 잘 쓰는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석봉은 꾸준히 글씨공부를 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눈보라치는 추운 날에도 부지런히 글씨를 썼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집을 떠난지가 여러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석봉의 글씨는 몰라보게 늘었습니다.

《집떠난지 여러해 되어 고생도 많았다. 이제는 명필이 되었으니 세상에 나가도 되겠다.》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며칠후 석봉은 절간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몰라보게 자란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날밤입니다.

어머니는 떡합지와 칼도마를 들고 방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석봉이더러 글씨 쓸 차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이윽고 어머니는 등잔불을 켜셨습니다.

어둠속에서 어머니는 떡을 썰고 석봉은 글씨를 썼습니다.

잠시후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어머니가 썰어놓은 떡은 하나와 같이 고르로왔습니다. 그러나 석봉이 써놓은 글씨는 고르롭지 못하였습니다.

《어떠냐. 세상을 놀래우기는 아직 이른것 같구나.》

석봉은 굳은 결심을 다지고 다시 집을 떠났습니다.

석봉은 그때로부터 여러해 꾸준히 글씨공부를 더하였습니다. 마침내 그의 글씨는 세상사람들을 놀래우게 되었습니다.

한석봉의 글씨는 여러 비문, 병풍, 족자들에 씌여졌는데 모두들 그것을 보물처럼 귀중히 여겼습니다.

외국사람들도 감탄하면서 그의 글씨를 다투어 구해가니 한석봉이란 이름이 세상에 떨치게 되었습니다.

한석봉은 지금으로부터 400여년전에 산 사람이지만 그의 글씨는 오늘까지 남아있습니다.

이 책은 리광섭, 김창덕, 홍기천, 류명은, 윤경수, 림왕성, 리갑제가 집필하였으며 편집은 김창덕이 하였습니다.

그림은 박찬규, 박옥훈, 김의관, 최광두, 리창엽, 손문학, 최경락이 그리고 편성은 김천종, 장정은 리창흠, 교정은 류금이가 하였습니다.

조선어

낸 곳 교육도서출판사

인쇄소 교육도서인쇄공장

인쇄 1990년 10월 3일

발행 1990년 10월 13일
